

 Altr: 손

 Kaming (GM): 알터님을 소환!
성공

 쿠사카베 린: 몬스터효과발동!

 Kaming (GM):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

여러분들은 무사히 하얀유령의 정체를 밝혀내었고 이번 소동의 원인이었던 코노하나 사쿠야를 지부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도피생활때문인지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빠져들어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은체 여러분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후 며칠뒤 여러분에게 사쿠야가 일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본부로 와달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본부-

 Kaming (GM): 여러분들은 연락을 받고 본부에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는

하사시로 시 특대 지부장 아키씨와 퇴마협회의 총수대행 아야네가 함께있네요.

그리고 안색이 저번에 봤을때보다 좋아보이는 사쿠야도 함께 앉아있습니다.

 와타나베 아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번에도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서 탁자에 엎드린 채 멍하니 아키 쪽을 보고있죠.

 와타나베 아키: "드디어 사쿠야씨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코노하나 사쿠야: "흐므 걱정끼쳐서 면목없군"

 악동양반: "저자세로 나올 필요없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웁찐.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호인: 애잖아

 쿠사카베 린: (ㅋㅋ)

 호인: "저자세로 나올 필요 없다"

 코노하나 사쿠야: "하지만 나는 지금 몸을 의탁하고있는 형편이라네"

 미츠키기 아야네: "하지만 정말로 영맥이 실체화하다니.. 처음봤을때는 정말 깜작 놀랐답니다."

 와타나베 아키: "일단 사태도 사태인지라.. 상부에는 보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응

며칠이 지나도 아직 고민하고있는 모양

 쿠사카베 린: (예나제나 상부가 문제!)

 Kaming (GM): (예산을 줘!)

 쿠사카베 린: (그리고 월급도 가불 줘!)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양. 구석에 놓인 물을 따라서 꿀꺽...꿀꺽...다시 자리에 드러눕기...!

 호인: "..."

와타나베 아키: "흠흠 아무튼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쿠야..씨?"

-  코노하나 사쿠야: "흐므 내가 아는선에서는 모두 알려주겠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책상을 톡톡 두드리면서 듣고는 있어요.
-  코노하나 사쿠야: "우선 20년전 일부터 이야기해야하겠지"
-  와타나베 아키: "20년전이라면..연옥의 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쿠사카베 린: "태어나기도 전이네" @우물우물
-  코노하나 사쿠야: "연옥의 밤이라고 부르는건 나는 잘 모르겠네만 갑자기 일본 전역의 나타난 불기둥을 말하는 거라면 맞네"
"나에겐 시로말고 많은 수호수들이 있었지 하지만 20년전 그 불기둥때문에 시로를 제외한 내 수호수들이 전부 사라지고 말았네.."
-  호인: '수호수...'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흥흥했었지, 그때느은..."
-  코노하나 사쿠야: "수호수들에겐 각지의 커다란 영맥을 지켜 그 주변을 다스리게 해놨네만..."
"그 불기둥은 나의 수호수들이 지키고있는 영맥과 함께 그들을 불태워 버렸지"
-  아라쉬: "....."
-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부..."
-  코노하나 사쿠야: "문제는 또있네"
"영맥이 불태워졌다는건"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뭐...그 시절에도 생존해있었던 세실리아는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는지 확실히 기억하고 있죠..
-  코노하나 사쿠야: "그 영맥을 거쳐로 살고있던 모노노케들이 전부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렸다는 소리가 되네"
"모노노케들이란 영맥이 없으면 살 수 없는몸"
"모노노케들은 자신들이 살 거처를 찾기위해 다른 영맥으로 갈 수 밖에 없었지."
"물론 불타지 않은 영맥의 대다수는...인간의 영역이였고"
"그로 인해 모노노케들은 자신들이 살기위해 인간들이 살고있는 마을로 향했고 인간들도 자신들의 거처를 지키기위해 싸워야만했지"
"그리고 그 혼란틈에서 사신녀석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지"
-  코노하나 사쿠야: "그렇게 일본에는 대혼란이 찾아온걸세"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악마들은 이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지만....이란 생각을 하면서 물을 한잔 더 마셔요. 꿀깍..꿀깍...
-  코노하나 사쿠야: "그래서 나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자 내 영맥의 힘을 나누어 지금까지 새로운 영맥을 만들고 불안정한 힘을 잠재우며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네"
-  아라쉬: "그때가 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건가"
-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음.
-  코노하나 사쿠야: "하지만 나라도 가만히 이곳에 있어서 영맥을 다루는건 할 수 없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코노하나 사쿠야: "보통이라면 수호수들에게 부탁했겠네만.."
"지금이런 상황이니 말일세 결국 내가 이렇게 실체화해서 시로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지"

 쿠사카베 린: "그랬던 거구나..."

 코노하나 사쿠야: "하지만 덕분에 지금의 나는 힘을 다 써버려 본래의 영맥의 흐름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네.
시로도 수년간 나를 지키느라고 힘을 다써버린 상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수 년...?" 년 단위로 현계했던 거야?"

 코노하나 사쿠야: @끄덕
"마지막으로 이곳 내가 관리하는 이 영맥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쩍...

 코노하나 사쿠야: "나의 일은 모두 끝난것이지"
"그러려면 힘이 돌아올때까지 숨어 지내려했네만.."
"갑자기 모노노케들이 덮쳐오는 바람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버리고 말았구만...미안하게 뒀네"
@시무룩

 호인: "우리들의 단편을 느낄수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됐을터"
"이제와서라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으니 다행이구나"

 와타나베 아키: "흠 그렇게 된거였군요.."

 미츠루기 아야네: "그러면 요 몇년간 일본이 평화로운건 사쿠야님이 힘써주신 덕분이군요."

 와타나베 아키: "하사시로 시만 유난히 사건이 끊기지 않았던건.."
"주인님은 영맥의 불안정함 때문이었던건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과연."

 와타나베 아키: "뭔가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네요"
@개운한표정

 쿠사카베 린: "그럼 사쿠야짱의 파워를 파vat-! 하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이냐?"
(아니야의 오타!)

 코노하나 사쿠야: "흐무.. 그렇게 하고싶다면 당장 하고싶네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버리는 모양이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꽃에 영양제 뿌리는 것 같이 말하지 말라구..."

 코노하나 사쿠야: "흐무 한가지 걱정되는건.."
"나 말고 일본을 관리하는 영맥의 주인들이 있단 말이지"

 와타나베 아키: "혹시 도쿄의 대영맥과 교토의 대영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코노하나 사쿠야: "오오 맞네. 그곳의 주인들도 분명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와 같은일을 했을테지만... 그들의 기운을 느낀적이 없군"
"결국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힘을 쓴 결과 이꼴이라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죽은거 아냐?"
@흠흠. 당장 떠오르는 건 이런 생각.

-  호인: "너무 그렇게 단정짓지 말거라"
-  코노하나 사쿠야: "흐무..."
-  호인: @세실리아에게 조용히 꾸짖듯이 말합니다
-  와타나베 아키: "한번..저도 알아봐야겠네요"
"만약 사쿠야씨의 말데로라면 도쿄쪽이나 교토쪽에서도 무언가 있겠지요"
-  미츠루기 아야네: "교토쪽은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도록 하지요"
-  코노하나 사쿠야: "그리고 또 한가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호인이 꾸짖으면 잠깐 토라진 듯 바라보다가 흥, 하면서 팔짱 끼고 시선을 돌려요.
-  코노하나 사쿠야: "이번에 나를 노리고 온 모노노케들은 평범하지않았네."
-  쿠사카베 린: (자폭 무화과들이었죠)
-  코노하나 사쿠야: "분명 그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무언가였어 목표는 나왔고"
-  아라쉬: "누군가, 흑막이 있다는 거야?"
-
-  코노하나 사쿠야: "수호수인 시로가 있어서 이렇게 버텼네만.. 만약 나에게 모노노케를 보낸 자가 시로의 힘이 약해진걸..알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나를 노릴지도 모르네..."
"지켜지는 입장에서 말하기도 뭐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야.."
-  호인: @그런 세실리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사쿠야의 말에 집중합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사쿠야의 그 말에 아키나 아야네 쪽을 힐끔.
-  와타나베 아키: ".....혹시 모르니 주변의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있는 인원 외에는 사쿠야씨의 대한 정보를 발설하는 것은 절대로 엄금합니다."
-  쿠사카베 린: "걱정 붙들어 매! 이치노스케의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작렬하면 나쁜 모노노케들 쫓이야!" @획획
-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네요"
"린은 언제나 활기차네요"
@웃음
-  쿠사카베 린: "쑥스럽게~"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한숨...
-  와타나베 아키: "그럼 그런걸로 사쿠야씨가 힘을 되찾을때까지 24시간 경계태세로.."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사쿠야의 정보를 흘리지 말라, 라는 건...증원은 없다, 라는 소리인데...
-  호인: "한주 정도 안자도 문제없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렇다는 건, 이 인원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던 어떻게든 해결하라...라는 거고...
@고민이 많아진 세실리아는 턱을 권 채로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거듭...
-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  와타나베 아키: "뭐 본부는 안전할테니까요"
@띠리링

아키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

@문자를 확인하더니..얼굴이 심각해집니다.



아라쉬: "그렇다면 한동안 아르바이트는 접어야겠네."

-



와타나베 아키: "여러분들... 모두 위로 올라가보죠"

"사쿠야씨랑 아야네는 이곳에 계셔주세요"



쿠사카베 린: (사건의 냄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생각에 빠져 아키의 말을 못 듣고 앓은 채 생각중...



미츠루기 아야네: "네 무슨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쿠사카베 린: "이건... 사건의 냄새!" @가방에 있는 이치노스케를 꺼내 품에 안고 올라갑니다



와타나베 아키: "세실리아씨? 세실리아씨"

@흔들흔들



호인: @가자구나 라고 하면서 세실리아를 잡지요

아키랑 같이



와타나베 아키: "초상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도...이상한.."

"피해자들이 2층 응급실에 있다니까 어서 가보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양?!"



쿠사카베 린: (시청 2층에 그런 공간도 있었군)



Kaming (GM): 시청 2층에는 초상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 치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갑자기 흔들거리면 살짝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보고...



아라쉬: "올라가보자."



호인: "그러지"



아라쉬: 벗어두었던 외투를 어깨에 걸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뭐야, 뭐야 갑자기?"



Kaming (GM): 보통 마지막엔 기억소거를 하지만



아라쉬: -



호인: "못들었느냐"

"초상사건이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잉? 갑자기 또?"



호인: "피해자가 위층에 있다더구나"

"빨리 가보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쫓."

@조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지만... 일어날게요.

 와타나베 아키: "그러면 빨리 갑시다."
 @여러분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

 Kaming (GM): -시청 2층 피해자 보호실-
 여러분들이 보호실에 들어가면

남학생A: "으...으아!!! 아파아!! 눈..내눈..이..! 으윽!!"

남학생B: "타들어가는것 같아아아아아! 눈이!!! 아아아악!"

 아라쉬: ".....!"

직원A: "누가 진통제 진통제좀 가져와!"

 와타나베 아키: ".....무슨일이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또 무슨...
 @다가가서 피해자의 눈을 살펴볼게요.

직원A: "아..! 지부장님 그게 이분들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호인: "...."
 @인상을 구합니다

직원A: "눈이....없어요"

 Kaming (GM): 말그대로
 피해자들의 눈이 있어야할 자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피도 나지않고
 눈 만 사라졌습니다.

 쿠사카베 린: @깜짝 놀랄 광경에 입을 가립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직원A: "그리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눈부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있지만.."

 아라쉬: "세실리아, 뭔가 알것 같아?"
 -

직원A: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정보 1 공개

 와타나베 아키: "대체...누가"

남학생A: "아아아악! 아아아악! 제발..누가 도와줘!"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니, 나도 이것만 봐서는 무리."

 와타나베 아키: "...일단 상황을 봐서는 초상사건이 분명합니다."

 쿠사카베 린: (맵 9번이군...)
 "이런 거 너무해..."

와타나베 아키: "하지만 대체 무엇때문에 피해자들의 눈을 저렇게 만들어 버린건지는..."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신경 자극이라면...진통제보단 모르핀 같은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아예 마취를..."
- 직원A: "...! 그렇군요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후다닥
-  호인: "기묘한 놈이로군"
-  와타나베 아키: "일단 지금 필요한건 정보입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 같은 학교랬지...?"
-  와타나베 아키: "현상황에서는 무엇에 의한 사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귀가 흔들흔들.
-  와타나베 아키: "네 확인된바로는 그들은 이츠츠노미야 기술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모두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한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택에 남아있던..가족들도 전부.."
@입을 짹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가족들도?"
-  와타나베 아키: "예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눈이..사라진체로 발견됐다고 하는군요"
-  아라쉬: "현장에 직접 가봐야겠네."
-
-  와타나베 아키: "일단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모아주세요"
-  호인: "이 모든 일을 저지른놈은 살아있음을 후회하게될것이다"
@주먹꽂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가능하다면 말이지..."
-  와타나베 아키: -전원에게
-초상사건을 해결한다 임무 부여!
-  아라쉬: 옆에있던 세실리아의 어깨를 두들겨 주고, 차를 가지러 먼저 움직이겠네요.
-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리드는 하나 뿐이니까...
-  와타나베 아키: "저도 좀더 조사해보고 알아낸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잠시 또 생각에 빠졌다가, 아라쉬가 어깨를 두드리면 히엣, 하는 작은 비명소리가 새어 나오겠네요
-  호인: 뭔가 충격받은듯이 서있는 쿠사카베의 곁으로 갑니다
-  와타나베 아키: "일단 피해자들의 주변인들의 탐문조사를 추천합니다."
-  호인: "반드시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  와타나베 아키: "그럼 저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벽

인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쿠사카베 린: "응..." @어깨의 떨림을 스스로 멈춥니다

 **Kaming (GM):** 피해자들은
매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두눈이 있어야할 곳은 텅비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발버둥 치고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일어난 이 기괴한 초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

 **Kaming (GM):** 자 모두들
영력 굴림 타이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4d6

$$(6 + 5 + 3 + 2)$$
$$= 16$$

 호인: rolling 4d6

$$(6 + 5 + 5 + 4)$$
$$= 20$$

좋아
안정적이야

 쿠사카베 린: rolling 4d6

$$(5 + 5 + 1 + 3)$$
$$= 14$$

 **Kaming (GM):** 영력 영력~

 아라쉬: rolling 4d6

$$(2 + 5 + 3 + 1)$$
$$= 11$$

 쿠사카베 린: 짝수가 없어..
짝수가 없으면 사룬안을 못 쓰는데

 **Kaming (GM):** 이치노스케 넘 크잖아!
자 그러면
신프레이어 정해보지요
d100

호인: 1d100

 Kaming (GM): rolling 1d100

(8)

= 8

@사망

 호인: rolling 1d100

(5)

= 5

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1d100

(26)

= 26

 호인: 오늘안으로 씬 안오겠군

 쿠사카베 린: rolling 1d100

(98)

= 98

 호인: 느긋하게 기다려야지

 쿠사카베 린: 어마?

 호인: 굿

 쿠사카베 린: 다이스 운 오늘 망했군...

 아라쉬: rolling 1d100

(50)

= 50

 Kaming (GM): 운을 이곳에 다쓰다니

 아라쉬: 중간을 간다

 쿠사카베 린: 아니야!

 호인: 안정적인

 쿠사카베 린: 크툴루로 치면 이거 팡이니까...

호인: 가운데 포지션



쿠사카베 린: 운이 좋을 거야!



호인: ㅋ



Kaming (GM): 자그러면 첫 신플레이어 린입니다.



쿠사카베 린: 네네



Kaming (GM): 등장인물 초대해주세요
브금이 너무 평화롭다



쿠사카베 린: 그러고보니 조사진행은 마스터 지정으로?



Kaming (GM): 아노 린이 원하는곳 가시면되요
신플레이어가 원하는곳



쿠사카베 린: 음... 저희 찢어져서 조사하는 게 빠르려나요?
전투는 없을 거 같고, 아직



Kaming (GM): 찢어지셔두 되구



쿠사카베 린: 그럼 일단 기술고교로
초대는 전원드릴게요 일단!



Kaming (GM): 네



쿠사카베 린: 뭐 사실 찢어져도 나중에 합류해야해서
ㅋ...



호인: 당장있는 정보가 저 기술고교에대한거뿐이라



아라쉬: 바래다 주기는 해야 할테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당연 저도 나갑니당



쿠사카베 린: 저는 각 학생들의 자택을 조사한단 것도 생각했던
그럼 기술고교로
밍나 고고



호인: ㄱㄱ



Kaming (GM): 등장판정 해주세웁



쿠사카베 린: 굴러라 영력교환타이밍!



Kaming (GM): 등장하실분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5 + 1)

= 6



호인:

(1 + 5)

= 6

 쿠사카베 린: (오...)

 호인: 4와 5를 교환

 아라쉬: rolling 2d6

(3 + 3)

= 6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흠...
3과 5를 교환

 호인: 이걸로 준비는 갖춰졌다..!

 쿠사카베 린: 다들 6이야

 아라쉬: 다들 6이야
?

 쿠사카베 린: ㅋㅋ

 아라쉬: 찌찌뽕
교환 없습니다

 쿠사카베 린: 익 늦었다

 Kaming (GM): ㅋㅋ

 호인: ???

 Kaming (GM): 네

=====

여러분은
우선 피해자들의 공통점인 이츠츠노미야 기술고교의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수업중이군요.
본래라면 세실리아나 린도 수업중이어야하지만..

 Kaming (GM): 합법적으로
땡땡이를 치고있습니다(?)

 쿠사카베 린: 교복입고 가면 눈에 땀테니..라고 생각하니 사복 입고 들어가도 눈에는 띄겠군요
일단 조사를!

 Kaming (GM): 마침 쉬는시간인지
운동장에 학생들도 나와있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에게 들러붙어 따라온 꼬맹이 역할을 하는건 어떨까 잠시 고민해본다...

 Kaming (GM): 여기저기 떠돌고있네요
이야기는 되있는지 경비병이 딱히 여러분을 막지 않습니다.

 쿠사카베 린: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학교가 같다는 거 + 학생의 가족들이었던 건데
막 반까지 같고 그러진 않았죠?

 Kaming (GM): 글썬요 반까지 같은지는 모르겠군요

 쿠사카베 린: 음... 그럼 일단 학교 부지 내에서 영력 따위가 느껴지는지 탐색을 해보고 싶어요
빠짐없이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남학생A: 일단 학교에서는 수상한 영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쿠사카베 린: 그렇군요...

남학생A: "오늘은 결석한 애들이 많네 그지? 감기라도 돌고있나"

남학생B: "아직은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초코우유를 짹짹

 쿠사카베 린: '음.. 역시 다들 모르고 있겠고...'
'으앙 단서가 너무 적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뭘 그리 고민해?"
@혼자 고민하는 린에게 던지시...

 쿠사카베 린: "내 영력 레이더(바보털)에 걸리는 게 없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보호자 역할을 맡은(?) 아라쉬 손을 잡고 멍하니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쿠사카베 린: (악ㅋㅋ 아라쉬랑 손잡고 있었억...)

남학생A: "그런데 이번에 결석한애들 전부 같이 몰려다니는 애들 아니었어?"

마을사람 B: "그런가? 대단한 우연이네"

 쿠사카베 린: "에~ 그치만 남자애들한테 말거는 거 썩스럽단 말야"

 호인: @어느새 남학생 한명에게 다가가서 뭔가 묻고있습니다

남학생B: 남B야

 호인: "자세히 듣고싶구나"

@불쑥
귀랑 꼬리는 당연히 안가렸습디다

 쿠사카베 린: (마을사람이기도 하다규!)

남학생A: "응...?"

남학생B: "응?"

 호인: "이곳에 나오지 않은 그 아이들에 대해"

남학생B: "뭐야 이 코스프레 꼬맹이는?"

 호인: "?"

생소한 용어

남학생A: "꼬마야 길 잃었니? 부모님은?"

@꼬맹이 취급당하는 호인



호인: "..."

@도와줘요 아라쉬!

아님 쿠사카베!

남학생B: "이거 선생님한테 데려가야하나?"



쿠사카베 린: (악ㅋㅋㅋ)



호인: @어리등절



쿠사카베 린: (이것이 쇼타외형...)

남학생A: "그런데 부모님 취향 이걸 좀 아니지않아? 꼬맹이한테 귀랑 꼬리.."

남학생B: "하하 그러게"



호인: @꼬리는 살아있는거마냥 움직이네염



쿠사카베 린: 그럼 다가가서

"미안~ 내 동생이~"

남학생A: "오옷 움직였다 최신식인가.. 응?"



호인: (동생이 백발)



쿠사카베 린: 하고 호인이를 뒤에서 끌어안듯
친근하게

남학생B: @호인과 린을 번갈아 쳐다본다.

"동생?"

@어딜봐서



쿠사카베 린: "그건... 5년 전의 사건이었어..." @슬픈 표정이 된다
"그건 그렇고"

남학생B: "앗..왠지 미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뭐, 잘 하잖아. 후후.



호인: @어리등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 이쪽은 모자로 토끼귀를 잘 가린 채 아라쉬 손에 매달려서 흥얼흥얼~



쿠사카베 린: "방금 얘기가 나온 애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마을사람 A: "이번에 결석한 애들? 글썄 나 그애들 잘 몰라서"



아라쉬: "우리가 가는 것 보단 걸보기 연령대가 비슷한 저 둘이 가는게 좋을 것 같네."

마을사람 A: (또나왔어)



쿠사카베 린: 정보를 이끌어낸다!



아라쉬: 세실리아에게는 그렇게 말하겠네요

-

 쿠사카베 린: (마을사람이기도 하다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러게에."

남학생A: "알아보고싶으면 교무실에 가보는게?"

 쿠사카베 린: "음.. 그럼 잘 알고 지내는 애가 따로 없을까?" @곤란한 표정으로

"아, 교무실..."

"응, 그래. 고마워~"

남학생A: "교무실은 어딴냐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나도 일단은 고등학생이지만. 몸은 12살 정도밖에 안되니까...."

 쿠사카베 린: @바보 같이 교무실 위치도 안 들었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랑 둘이 잡담하면서 린을 바라본다

 호인: 교무실 위치는

호인이 들을겁니다

 쿠사카베 린: 익

남학생A: "여기서 쪽 가서 오른쪽으로 꺾고 커다란 소나무가 나오면 왼쪽으로 꺾은다음에 나오는 철문에서 문을 열고 오른쪽 복도로 간다음 나오는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다가 나오는 구름다리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이하생략)

 쿠사카베 린: 뭐 사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학교 내부 지도가 나오겠지만요

남학생A: ".....로 가면되 알았지?"

 호인: "알아들었다"

@호인이 대신 대답합니다

남학생A: @착한일을 했다는 느낌에 으쓱한 표정

 쿠사카베 린: 그럼 곧바로

렛츠-고~

남학생A: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들어가봐야해서"

 쿠사카베 린: "잘 가~"

남학생A: @손을 흔들며 사라집니다.

 Kaming (GM): 과연...남학생들이 알려준데로 여러분은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성 [지식]판정!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린만?)

 Kaming (GM): 아무나

 호인: 지성 높으신분...

 Kaming (GM): 같이 들었으니

모두 판정 시.도는 가능해요

 호인: 6하나만 더 가져올까나

rolling 2d6+3

(6 + 5)+3

= 14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8 지성은지성

(3 + 5)+8

= 16



쿠사카베 린: 히익 지식



Kaming (GM): 는 난이도 말씀 안했구나



호인: 6과 5를 교환



Kaming (GM): 난이도는 10



쿠사카베 린: rolling 2d6+7

(2 + 5)+7

= 14



호인: 교환해도 성공하다니



아라쉬: rolling 2d6+2

(4 + 5)+2

= 11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대로간당



쿠사카베 린: 1과 2를 교환하겠습니당
달성치는 13



아라쉬: 제가 가진 5를 여기의 4와 교환



Kaming (GM): 뭐 다들 성공이네요
역시갓갓카미가카리들이라



쿠사카베 린: 갓미갓카리들...



Kaming (GM): 기억력이 좋으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외로 복잡한
학교 내부를 이동하다보면
그 학생이 말한 교무실이 나오네요



쿠사카베 린: 교무실 문에 뭐 별다른 문구 같은 게 붙어있거나 하는 건아니겠지

중간고사 기간 중/ 학생 출입금지
같은..



Kaming (GM): 별다른건 없네요



쿠사카베 린: 다행이네요
그럼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선생님: "에잉..이녀석 연락도 안되고 대체 무슨일인지"
"...? 처음보는 학생과..누구시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문 밖에서 벽에 기대고 교무실에 들어간 린과 선생님의 회화를 들어보죠.



Kaming (GM): 대머리 선생
중년 아조씨예요



호인: @호인은 그냥 린과 함께 쳐들어왔어요

선생님: @뒤에 아라쉬와 린과 호인을 바라보며



쿠사카베 린: (그리고보니 피해자들 이름 같은 거 모르고 왔죠?)
(으에...)

그럼

그 선생님께

XX군의 친척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고 있는데, 혹시 갈만한 곳이나 어울리는 친구들을 아는가

거/짓/말을



쿠사카베 린: 거짓말에 판정이 필요하러나요?

선생님: 아뇨 필요없을듯 하네요 이번엔



쿠사카베 린: 다행!

선생님: "아아 이번에 아파서 결석한 녀석들의 친척분이시구나"



쿠사카베 린: (눈이 빠졌는데 결석처리는 누가 해준거지)
(가족들이 전부 당한 건 아닌가보네요)



Kaming (GM): 우수한 특대의 요원들이..



쿠사카베 린: 특대...



호인: 사스가 특대



쿠사카베 린: 특대만능설
성대모사도 완벽...
선생님 말씀에 맞장구칩니다

선생님: "나도 깜짝놀랐지 뭐야 같이 몰려다니던 녀석들 전부 결석하다니 말이야"



쿠사카베 린: "어머...그런 일이 있었나요?" @내송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전부 같이 패거리였다...라..

선생님: "분명 다들 모여서 게임하느냐고 골병을 앓는거겠지 에잉 쫓쫓"

"이번에 공짜 게임기인지 뭔지 얻었다고 신나할때 좀더 때려서 정신차리게 만드는건데"

@정보2공개

@허를 차지요



쿠사카베 린: "그랬군요."

"혹시 학교에 가져오거나 했나요?"

"보셨다거나..."

선생님: "그런거 가져왔다간 내가 당장 박살냈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에에, 어째서...



쿠사카베 린: "훌륭한 선생님이셔라~" @국어책읽기

선생님: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그런걸 들고온다니@쯧쯧"



쿠사카베 린: "다 나오면 혼쫓을 내줘야겠네요" @오호호, 가식을 넣은 웃음소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신성한..."

@밖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선생님: "갑자기 단체 결석이라 머리가 아프군"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해도 받지를 았으니 미안하지만 이쪽에서도 연락이 안되"

"일단 결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니 처리는 하겠지만..."



쿠사카베 린: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그래"



쿠사카베 린: "그럼 저희는 이만..."

선생님: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선생님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흠흠...게임기를 하고 단체로...눈이...흠.



쿠사카베 린: (크툴루라도 튀어나왔다)

선생님: ".....이녀석은 왜 전화를 안받아.."



아라쉬: "그 게임기를 확인해봐야겠네. 직접 집에 방문해야하나?"

일행들에게만 들리도록

-



쿠사카베 린: "그게 좋겠죠?" @소근



호인: "그 물건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중요할거같다"

선생님: "이녀석은 말도없이 등교를 거부해? 친구들은 다 아프다고 말했는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자택...주소 알아요?"

선생님: @하며 전화를 난폭하게 내려놓네요



쿠사카베 린: "아, 그리고보니 선생님"

선생님: "응?"

@간거아니었냐는 표정

 쿠사카베 린: "괜찮으시다면 같이 게임기 가지고 놀았다던 애들 집주소를... 어~떻게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간절히

"학생의 개인정보라는 건 아는데에"

"아무래도 관련된 애들을 다 만나봐야 확실해 질 거 같아요."

"부디!"

선생님: "학생의 개인정보는 넘겨줄 수 없는데..">@곤란한 표정

 쿠사카베 린: @제트슬라이딩퍼펙트도게자
교섭판정이다!

선생님: 네

교섭판정으로

 쿠사카베 린: 좋은 옷을 교섭+1...

 호인: ㅎㅎ..

 쿠사카베 린: 2d6+7로 달린다!

rolling 2d6+7

(4 + 1)+7

= 12

1과 5를 체인지!

선생님: 난이도 주는걸 깜박했지만

그정도면 성공이겠쥌

네

 쿠사카베 린: 앓 그렇군요
그럼 바꾸지 않기로

선생님: "공...."

 쿠사카베 린: 린의 화려하고 예술적인 도게자의 궤적에
선생님은 넘어오고 말았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한다면야"

@곤란해 하면서도 알려줍니다.

 쿠사카베 린: "감사합니다!" @능물

선생님: "아 그리고 같이 다니는 녀석중에 등교를 안한녀석도 있어 이녀석 말도없이..뭐 그녀석도 같이 다니는
녀석들중 한명이니까"

정보3 공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주소를 듣고 끄덕끄덕...
@저쪽인가아...

선생님: "그럼 난 이만 수업해야해서"

@일어납니다.

 쿠사카베 린: "네~"

"으.. 무릎 까졌어."

@소근



Kaming (GM): HP에 3데미지..

@소근



쿠사카베 린: 야메떼!

"그럼!"



호인: "고생했구나"



아라쉬: "그럼 가볼까. 늦어지기 전에."



쿠사카베 린: "어서 가보죠" @소근소근

그렇게 수업시작종이 울리는 기술고교를 뒤로...

렛츠 고 주택가!



Kaming (GM): =====

다음 신플레이어는 토끼짱

하악하악



쿠사카베 린: 그러고보니 저희 이번에는 별다른 목적 배부는 없나요?

경험점을 주는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Kaming (GM): 좆어양

초상사건을 해결한다



쿠사카베 린: 아하

실례했습니다



Kaming (GM): 세실리아 등장인물 초대해주세요

하악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주택가 A로 가고...

다들 오시라고 합니다



쿠사카베 린: (아 왜 눈치를 못 쳤나 했더니 임무라고 주어졌구나)

(바보바보 융통성부족



호인: 결국



Kaming (GM): (바카바카)



호인: 모두 다함게 갈 운명



쿠사카베 린: 사이좋게 다같이~



호인: rolling 2d6

(5 + 6)

= 11

 쿠사카베 린: 등장합니다

 호인: 뭣...이...

 쿠사카베 린: rolling 2d6+6

$$(5 + 4) + 6$$

$$= 15$$

 아라쉬: rolling 2d6

$$(4 + 2)$$

$$= 6$$

 쿠사카베 린: 2와 4를 체인지

 아라쉬: 바꿀거 ㅊㅇㅂㅂ음

 호인: 저도 당장은 바꿀게 없군요
아니다
6과 5를 바꾸죠
666!

 Kaming (GM): 네
그러면

=====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택가A의 왔습니다.
오전이라 그런지 한산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한산한 거리를 흥얼거리면서 걸어나가고 있겠군요.
@아까 린에게서 잔달받은 주소로...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Kaming (GM): (하악하악)

 호인: @그 뒤를 따릅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부적으로 안보이게 해놨겠지만 토끼귀가 사랑사랑..
@주소 근처에 도착하면...적어둔 메모지를 확인...
"이 근처인데...?"

 Kaming (GM): 바로 옆집이네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슬쩍 돌아본다.
"여기...인데..."
@일행쪽을 힐끔.

 아라쉬: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을까?"
기세소실로 투명해집니다.

마을사람 A: 은신이군요

텔런트 사용하시나요?



호인: 저는 쓸게 없군요
"멋대로 들어가는것도 실례겠지"



아라쉬: 네



Kaming (GM): 아라쉬님?

네

그러면 코스트 소비해주시고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로 감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까운듯



Kaming (GM): 아라쉬는 은신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들어간다..?"



아라쉬: 들어가서

거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네요

그리고 없다면 게임기를

-



Kaming (GM): 일단 들어가려면 문이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네요.

물론 아직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호인: 부숩버릴까



아라쉬: 흠



Kaming (GM): 선택은 자유



아라쉬: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요새 잠입의 요령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걸로

-



Kaming (GM): 창문은 잠겨있군요 하지만 딸 수는 있을꺼 같습니다.

민첩 [개정]판정

난이도 9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못 따면 그냥 부수고 들어간다?"



아라쉬: 민첩이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기다려준다..



아라쉬: 제 특기죠



Kaming (GM): 몬다이나이겠죠

이 정도의 평범한 창문쯤



아라쉬: rolling 2d6+6

$$\begin{aligned} & (\boxed{6} + \boxed{1}) + 6 \\ & = \boxed{13} \end{aligned}$$

 **Kaming (GM):** 네 성공

 **호인:** @호인도 슬슬 기다리는게 지치는듯 발을 땁니다

 **Kaming (GM):** 그럼 아라쉬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네요
2층인듯?

 **아라쉬:** 숨소리를 죽이고 2층의 말소리를
들겠네요

-

아줌마: "타케시..정말 안나올꺼니? 학교는 또 왜 안가구..무슨일 있는거야.."

타케시: "아무일도 없어! 제발 제발 혼자있게 해줘"

아줌마: "타케시.."

 **Kaming (GM):** 타케시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여러분이 찾는 피해자들의 절친인듯합니다.

 **아라쉬:** 은신한채로 타케시란 남자아이의 방을 찾아 올라가겠네요

 **Kaming (GM):** 방문을 걸어잠구고
나오지않는듯

 **아라쉬:** 타케시 방의 창문으로
올라가보죠

-

 **Kaming (GM):** 타케시의 창문으로 가려면 다시 나와야겠네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아라쉬가 잠입액션을 찍는 동안, 그가 들어간 창문 밖에서 기다린다..

 **아라쉬:** 벽을 타야 하니 그렇겠네요
재빠르게 창문을 빠져나와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시한번 판정?

 **Kaming (GM):** 등반판정
난이도 11

 **아라쉬:**

$$\begin{aligned} & (\boxed{4} + \boxed{3}) + 6 \\ & = \boxed{13} \end{aligned}$$

 **Kaming (GM):** 체력판정이지만

그래도 성공이군
다행히 창문은 열려있군요
아라쉬가 들어가면
방구석에서
이불을 돌돌만체 벌벌떨고있는 남자아이가 있군요

타케시: "나때문..나때문이야 나때문..."

@덜덜덜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므므므...



아라쉬: 방안을 둘러보아 게임기라는 것을 찾겠네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창문 밑에서 기다린다....

@발로 땅을 톡톡...



호인: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적당한 종이상자가 있어서



Kaming (GM): 게임을 좋아한다는 만큼



호인: 가져온다



Kaming (GM): 수많은 게임기가...

크고작은..



쿠사카베 린: (예의교섭통솔매료... 정신판정은 세실리아의 턴일테니까!)



호인: @종이상자를 뜯고 펼쳐서 뒹굴뒹굴



아라쉬: 여기서 제가 구분해내는 것은

무리겠네요

타케시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겠습니다.

타케시: "무서워..나도 나도 그애들처럼..무서워"



쿠사카베 린: (감지나 식별로 영력을 탐지하는건?)



아라쉬: 크흠. 하고, 목소리를 깔아서

"타케시... 타케시... 들리느냐..."

-



쿠사카베 린: (왓!)

타케시: "...!"

"귀..귀신이다아아아아! 드디어 나도 그애들처럼..!"

@발광한다

"으아아악 싫어 싫어영어어!"



호인: (억ㅋㅋㅋ)

(역효과인가_



아라쉬: "진정하거라... 나는 네 조상이니라..."

"널 지키기 위해 찾아왔단다..."

-

아줌마: "타케시! 타케시 무슨일이니!"

밖에서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타케시: "으아아아아아가아아아가!"



아라쉬: 설득

해볼게요

타케시: 네



아라쉬: 이걸 여기서 교섭을

해봐야겠네요

타케시: 난이도는 18입니다.



아라쉬: ㅋㅋㅋㅋㅋㅋ



호인: (이런 미친?)

타케시: 제정신이 아니라

말을 전달하려면



아라쉬: 이걸...

타케시: 매우 힘들꺼같네요



아라쉬: 뭘로 해야 할까요?

지성?



Kaming (GM): 일단 귀신처럼 등장한 아라쉬에게 패닉을 일으킨게 큰듯합니다.

교섭은 지성판정이죠

아니

정신판정



아라쉬: 정신 1이니

크리가 나와야 성공이네요



Kaming (GM): 네



아라쉬: rolling 2d6+1

(1 + 3)+1

= 5

무리!



Kaming (GM): 네 싹빠이

타케시는

아라쉬의 말을 듣지못하고 안에서 발광합니다.

타케시: "눈이..내눈을 가져갈꺼야..아아아아악!"



Kaming (GM): 극도의 공포의 빠져 패닉상태



아라쉬: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쿠사카베 린: 일ㅋㅋ

 Kaming (GM): 아무래도 일단 팀원들에게 돌아가보는게 좋겠네요
일단은

 아라쉬: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실패를 보고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난리 났네에."
@끄응...어떻게한다.

 쿠사카베 린: "적어도 저 애가 뭔가 알고 있던건 알아냈네요"

 호인: @종이상자에서 뒹굴거리다가

 아라쉬: "요즘 애들은 귀신에 겁이 많네..."

 쿠사카베 린: "패닉에 빠져버렸지만..."

 호인: 소리를 듣고 깽니다

 아라쉬: 머리를 긁적 거립니다.

 호인: "왔느냐"
"꽤 소란스럽더군"

 쿠사카베 린: "히키코모리 동급생을 방문하는 반장 흥내라도...?"

 아라쉬: "진정 시킬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

아줌마: "타케시이! 경찰..아니 구급차를.." @안에서 다급한 타케시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쿠사카베 린: (으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구급요원...?"
"그 쪽으로 변장이라도 해서 데려나오는 건?"
"아니면 최면이라도 걸거나..."
@린 쪽을 보죠. 가능한가?
@사륵안...?

 쿠사카베 린: 뭐사륵안이
무난하겠네요

 Kaming (GM): 일단 여러분 어떻하나요?

 쿠사카베 린: 아줌마 사륵안으로 진정시키고 들어가면...

 아라쉬: 흠

 쿠사카베 린: 타케시를 설득하는 게 문제군요

 아라쉬: 경찰로 변장해서
게임기 달라고 한다던가?

 쿠사카베 린: 변장도구가..



아라쉬: 영력으로..

사룬안으로

경찰로 보이게 되는 것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쿠사카베 린: 기억을 조정하는 쪽이라서

환각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Kaming (GM): 환술은..아니약ㅋ



쿠사카베 린: 실은 사룬안이 아니었다



아라쉬: 츠쿠요미가

아니었던 말인가..



쿠사카베 린: 냥 ㅠ



Kaming (GM): 뭐 패닉상태여도

세실리아의 정신판정 자동성공만 있다면야..



쿠사카베 린: 앗... 세실리아가 문 너머에서 교섭판정에 자동성공하면

넘어와주는군요 (쇼로이)



Kaming (GM): (여자니까요?)



아라쉬: 그럼

돌격

아라쉬는

반성하면서



Kaming (GM): (남자애랑 교섭할땐 역시 여자애..ㄷ)



아라쉬: 린에게 뒤를 맡깁니다.

"미안. 내 힘으로는 무리였어."

-



쿠사카베 린: "괜찮아요 연기 재밌었어요"



Kaming (GM): 아라쉬의 책임회피 효과는 굉장했다



쿠사카베 린: @히죽



아라쉬: "자손이 없는 영웅혼이라..."

변명을 합니다.

-



쿠사카베 린: 그럼 벨을 눌러서... 아줌마를 끌어내도록 해보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아줌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그렇게

여러분이

문앞에서



쿠사카베 린: 씬 플레이어인 세실리아의 활약이 곧 온다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거 아냐 다들...?!

아줌마: 서있는동안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
"나..누구시죠"



쿠사카베 린: @최면동술
코스트 4 소모

아줌마: 네



쿠사카베 린: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오전이네요"

아줌마: "...평화로운..오전"
@최면에 걸린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좋은 아침이에요?"



쿠사카베 린: "이렇게 평화로운 날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어요



쿠사카베 린: "점심까지 돌아오면 될 거예요~"

아줌마: "좋은아침이네요..그럼 저는 산책을.."
@터덜터덜



호인: "..."
"어떻게든 단서에 접근할수 있으니 이걸로 된거겠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남은건 그 애네..."
@슬쩍 안으로 들어서며 위쪽을 올려다보죠.



Kaming (GM): 윗층인데도
아직까지 발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쿠사카베 린: (SAN치체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올라가요.
@달랠 수 있을까...

타케시: "아아아아악! 어디야! 나와! 나와야!"
@공포를 넘어 용기가 되었다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쿠사카베 린: (우-왓)

타케시: 아마 때려부수고있는듯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옥, 진정, 진정해!"
@그럼 문 밖에서 일단 말을 걸어보죠.

타케시: "누구..? 밖에? 밖에있구나! 너 우리엄마를 어떻게 한거야!"

@광광광

방문이 시끄럽게 올립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걱정 마.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렸으니까."

타케시: "거짓말 거짓말하지마!"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일단 차분하게 설득을 시도...



아라쉬: 말을 안들어...

린!

도와줘!

타케시: "내 친구들..그 친구들의 가족까지 전부...아아아아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나와서 보면 알겠지?"



쿠사카베 린: (사료안 스톡이 없습니다)

(뭐든 기억조작으로 넘길 순 없어요!)



아라쉬: 교섭으로

자동성공..



쿠사카베 린: (지금은 세실리아의 턴!)



아라쉬: 맞아 그랬지..

타케시: ".....정말...아니 거짓말..분명 거짓말일꺼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정말이야. 너랑 너희 어머니를 지키러 온 거라고."



Kaming (GM): 그래도 조금은 진정한듯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문 열고 나와보지 않으려?"



Kaming (GM): 시끄럽던 방안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교섭판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어린이지만...이럴 때에 풍기는 느낌은 연륜 있는 여성 같네요.



Kaming (GM): 난이도는 14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정말로, 해치러 온 게 아니니까. 지켜주러 온 것."

@이라고 하면서 교섭을.



Kaming (GM): 넹

지성판정

이아니였지

정신판정이였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신비의 위엄.



Kaming (GM): 자동 성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5 써서 자동성공.

@하나 임의로 변경...2를 5로.



Kaming (GM): 영력 바꿔주시구

네

타케시: @끼이이익..

문이 살짝 열리고

두려움에 가득찬 눈에 별별떨고있는 한 남자아이가 세실리아를 바라봅니다.

남자아이라고 해봤자

고교생이지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보이지 않게 모자 속에 숨겨둔 토끼귀가 쫹긋쫹긋...

타케시: "여자..아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 타케시에겐 자기보다 더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내밀고 있는게 보이겠네요.

"뭐어, 일반인은 아니지만."

타케시: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분위기.

타케시: @여자아이란걸 알고 어느정도 경계심을 푼듯

문을 더 엽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네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 "평범" 한 건 아니잖아?"

타케시: "내..친구들을 알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 양팔을 앞으로 뻗어 보여준 채 천천히 다가가요.

"응. 심하게 다쳤던데...너도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온거야."

@조심스레,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타케시: "그렇구나..나를 지켜주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이내 완전히 다가가면, 머리에 손을 올려주고 천천히 쓰다듬 쓰다듬.

타케시: @털썩 주저앉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자, 진정하고..."



Kaming (GM): 타케시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어진거 같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그럼...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

@토닥 토닥...

타케시: "다..나때문이야 내가 이상한 소리만 안했어도.."

@그러면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따스한 손길...

타케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보 4공개



쿠사카베 린: (멀지 않은 곳이군...)

타케시: "전부 내가 이상한 소문을 알려줘서.."

@덜덜덜

"나도 내 친구들처럼 되는걸까?"

"싫어 싫어 싫어.."
"왜 어째서 이런일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괜찮아. 괜찮아..."

 Kaming (GM): 평범한 남학생이 갑자기 눈이 없어진 자신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봤다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꼬옥 안아주면서, 고민을해보죠. 이 아이랑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하나...

 Kaming (GM): 엄청난 트라우마겠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른 동료 쪽을 힐끔 바라봅니다

타케시: "....."

@잠도 못잔건지
@세실리아에게 안심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호인: "변화가A라고 했었던가"
@타케시가 잠들면 들어와서 말하지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응."
"애는 본부로 데려가야 하나?"
@자는 타케시의 머리를 자상하게 쓰다듬어주면서 물어보죠.

타케시: 엄마 세실리아

 쿠사카베 린: "혹시 모르니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소문만 들었다니 당하진 않을 거 같긴 한데."
"만약을 대비하면, 역시 데려가는게 좋겠지?"

 호인: "아키에게 일러두자구나 특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것이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꼬덕

타케시: 일단 이곳에 일은 마무리 된거같군요

 아라쉬: 혹시 다시 제 목소리를 들으면 발광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아키에게 문자로 전달 해두고...
@특대에서 올때까지 세실리아는 여기 대기하는걸로.

타케시: 네

 Kaming (GM):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공짜 게임기를 나눠주는건
밤의 변화가A군요

 쿠사카베 린: 밤까지 시간을 넘겨서 진행되려나..

 Kaming (GM): 그러면 여러분은 잠시 대기하도록 합니다.

=====
잠시 마스터썬

=====

-나나모리 학원-



카미야 쿄코: "우우...오늘도 세실리아는 없고"

@책상에 엎어져서 발을 동동

"매일 매일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니까"

"으으..토끼귀성분이 부족해 이러다간 금단현상이 와버릴지도.."

@똥굴똥굴



쿠사카베 린: (시리어스를 깨뜨리는 God미야씨...)

남학생A: "에에 정말 그거 그냥 도시전설같은거아니야?"

남학생B: "아니 진짜라는 소문도 있던데?"



카미야 쿄코: '도시전설..!'

@귀 쫓긋

남학생A: "에 난 못믿겠는걸 누가 좋다고 그런일을 해"

남학생B: "그래도 밤의 변화가A의 골목길에 가면 최신형 게임기를 무료로 준다던데?"

"확인해볼 가치는 있지않아?"

남학생A: "으음 하지만 시간아깝고..."

남학생B: "똥어 그럼 나혼자라도 가지뭘"

남학생A: "하아 알았어 가줄게"

남학생B: "오케이 그럼 밤에 JR센기역에서 봐"



카미야 쿄코: "...게임기인가아"

"오랫만에 도시전설.. 세실리아도 없는데 확인해볼까!"



Kaming (GM): =====

다음 씬플레이어는 아라쉬



아라쉬: 념



Kaming (GM): 참고로

타케시와는 감정맺을 수 있어요

(이름이 있다=감정대상자)



쿠사카베 린: 그럼 타케시 대상으로...

아 그러고보니 사쿠야도 있었쥬

둘다 맺어줘야지...



호인: 타케시

맺는다!



아라쉬: 타케시 대상으로 미안함...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맺어야지...



Kaming (GM): (그리고 여러분 전원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보호!

 Kaming (GM): (물론 안넣으셔도 상관은..없..)
그러면 일단 소모한
영력 회복해주시고

 쿠사카베 린: rolling 1d6

(3)

= 3

회복완료

 Kaming (GM): 아라쉬도 코스트 홀 하나 소비하셨죠?

 아라쉬: 네

rolling 1d6

(1)

= 1

 Kaming (GM): 홀이 나왔다고 한다

 아라쉬: 앳타제
1234

 호인: 허어...

 Kaming (GM): 세실리아도
를

 호인: 세실리아의 영압이...

 Kaming (GM): 소울 소사이어티로 돌아가신듯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계산좀 하고와세요

rolling 1d6

(3)

= 3

 Kaming (GM): 회복해주시구
아라쉬 등장인물 초오대

 아라쉬: 저누언
전원

 Kaming (GM): 네 등장하실분은
등장판정 해주세요

 쿠사카베 린: rolling 2d6

(5 + 5)

= 10

 Kaming (GM): 55

 쿠사카베 린: 음 짝수가...

 호인: rolling 2d6

(1 + 4)

= 5

바꿀거 없습니다

 쿠사카베 린: 3과 5를 변경

 Kaming (GM): (5의 괴물이 되어가는 린이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ㅎㅎ...

rolling 2d6

(5 + 3)

= 8

3과 5를 교환

 Kaming (GM): 네 영력조작 마치시면
씬 시작하겠습니다.

=====

해는 기웃기웃 넘어가고

어느세 하사시로 시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타케시와 그 어머니는 특대에서 안전하게 데려가 보호하고있습니다.

 Kaming (GM):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나요?

 아라쉬: 타케시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라..
변화가 A로

-

 호인: 변화가A로

 쿠사카베 린: 어둠이 드리운 밤을 가로지르는, 우리는 카밍가카리

 Kaming (GM): --
변화가A

화려한 조명과 밤이지만 꽤 많은 인파

이곳이 변화가란걸 보여주고있네요.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곳도 있기마련

변화가의 골목길은 그 조명의 빛이 비춰지지않아



Kaming (GM): 매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런 시간에도 사람 많네에."

@눈을 살짝 깜박이며 중얼거려요.

@어린이에겐 늦은 시간...

@카미가카리니까 버티는 건 문제 없습니다만.



Kaming (GM):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덤



호인: "분명 골목길에서 유혹해온다고 들었다"



아라쉬: "우리같은 모임이 다같이 다니면 의심 받을거야."



호인: "그 말도 맞다 대상은 어린 생명들인듯 하니 나나 세실리아가 가면 되겠구나"



Kaming (GM): (특히 아라쉬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내가 미끼?"



쿠사카베 린: (여학생 둘, 아이 하나와 밤길을 돌아다니는 청년...)



아라쉬: "아니. 적이 근접해 있다면 호인이 나올지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호인을 잠시 바라보죠.

@안가린 귀.



Kaming (GM): 걸보기엔 어린아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지곳...



Kaming (GM): 주변을 지나가며 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나가는군요



아라쉬: 모자를 씌우겠네요...



Kaming (GM): 단순한 코스프레인줄 아는듯



호인: @씩워줌

*짐

"??"

"왜그러는가?"



Kaming (GM): (일본은 스고이네)



호인: @꼬리도 안가림



아라쉬: "귀가 보이면 의심 받을수도 있으니까."

"꼬리는..."



호인: "굳이 가려야할 필요가 있느냐?"

@리얼 이해못한 표정



Kaming (GM): (수인 꼬마애가 지나다녀도 코스프레인걸로 알아)

아라쉬: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유혹해오지 않지 않을까?"

호인: "흠...그런가 그럼 내가 가보겠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으므므..."

호인: "아라쉬 다시 그 투명해지는것을 사용할수 있겠는가"

아라쉬: "그래."

기세소실...

1을 사용

Kaming (GM): 네

호인: 투명해진 아라쉬와 함께 골목길로 향하기로 합니다

Kaming (GM): 다른분들은 어떻하나요?

아라쉬: 차에서 대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골목길의 분위기는 어때요?

Kaming (GM): 으속한 분위기입니다.
조명이 닿지않아 어둡기도 하구요
하지만 안보일정도는 아닙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따라가볼래?"

쿠사카베 린: "으음... 들어갔다가 괜한 떼거리에게 붙들릴지도...?"

Kaming (GM): (얇은책 전개가 되버렸)

쿠사카베 린: 얼마간 아가씨 학교 좀 다녔다고, 거부감이 더 드는 린

Kaming (GM): (는 녀담)

아라쉬: "그래. 요즘 같은 밤에 여자애들이 돌아다니는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특히 어두운 곳을 말이야."

Kaming (GM): 카미가카리지만

쿠사카베 린: "뭐 여차하면 이치노스케를 크~게 만들어서"
"압☆사시키면..."

Kaming (GM): 저런..

아라쉬: "일반인 상대로 카미가카리의 힘을 쓰는건..."
"음..."

쿠사카베 린: "후후 이제 XXXkg이니까♪"

호인: "일단 먼저 들어가보겠다"

쿠사카베 린: "다녀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암."

 호인: "특별한 일이 있다면 신호하마"

 아라쉬: 따라 갑니다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 린 옆에 대기하도록 하죠.
@괴상한 짓 하지 못하게...

 호인: @아라쉬가 다가오는게 느껴지면 들어갑니다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흥흥흥

 Kaming (GM): (취향나쁜 인형..)

골목길은 예상보다 더 으스스합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걸까..

하고 생각할때쯤 조금 넓은 공터가 나오는군요

공터 중앙에는 고철쓰레기인지 모아둔게 보이고

 Kaming (GM): 그리고 저앞에는 막다른 골목이 또 보이네요
그리고 그곳에 나나모리 학원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생들

 호인: @아라쉬가 준 모자를 쓴상태로 그들에게 접근해봅니다

남학생A: "이야 진짜일줄은"

남학생B: "거봐 오길 잘했지?"

남학생A: "이거 이번에 나온 신형 닌X도잖아"

남학생B: "카아 이걸 공짜로 받다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라쉬: "...저건 것 같네."
"그렇다는건 골목 안에 있는건가."
"그 전에... 저 문제의 게임기들은 뺏어야하지 않을까?"

-

 호인: "좋다 조금 거칠게 나갈수밖에 없겠군"
@으르렁

남학생A: "응? 어디서 짐승의 소리가"

 호인: 66 소모 수마 변신

남학생B: "그러게 호랑이 소리같았는데"

 호인.: @쿠아아앙! 하면서 남학생들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될려나

남학생A: "으아악 호랑이다!"



호인.: (교섭할 자신은 읍서)

남학생A: @골목길 안쪽으로 도망칩니다.



아라쉬: 그 사이에 손에 들고 있는
게임기 두개를
쏘아 떨어트리..
—□
음



호인.: 음...
놓고 도망갈줄



아라쉬: 나왔던 골목길로
되도라간다는
소리지요?
학생들



Kaming (GM): 네
막다른 골목길이였지요



아라쉬: 막혀 있으니
쫓아가죠



호인: @호인은 다시 쏙 변해서
아니 아니다



호인.: 으아앙 하고 겁만 쥐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Kaming (GM): 쫓아가면
막다른 골목에
두명이 얼싸안고 떨고있고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남학생A: "여기서 죽는건가..너때문에..!"

남학생B: "무슨소리야!"

남학생A: "네가 이곳에 오자고 안했으면!"

남학생B: "죽기전에 너먼저 죽여주마!"



쿠사카베 린: (우왓 악역전개)

남학생B: @어째서인지 둘이 싸우고있다



호인.: '지금이다 적당히 빠질테니 구해주거라
@아라쉬에게 말합니다
구해주게 라고 말해야되는데
으르렁 거리며 아라쉬가 개입할 타이밍을 노려요
근데 어째 둘이 싸우니까
"크와아아아아!!!"



호인.: @달려드는척

남학생B: "히이이익!"

남학생A: "엄마아아!"



아라쉬: 게임기를 쏘아 떨어트립니다.



호인.: 엡ㅋㅋㅋㅋ

가차없넹ㅋ

남학생A: "앗..! 내 게임기가!"

딱히 움직이는것도 아니고

문제없이 맞추겠네요



호인.: 화살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는거처럼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이젠 자네 차례군"



아라쉬: 양쪽 게임기가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면 호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습을 보이면 게임기를 나눠준다는 녀석이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



호인: @다시 뽕 변합니다

"흠...알겠다"

@그럼 변한상태로 남학생들에게 접근해보져

남학생A: "호랑이가..사라졌어"

남학생B: "도망쳤나.."

@멍..



호인: "무슨일이냐 괜찮은것이냐"

남학생A: "뭐야 꼬맹이잖아.."



호인: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와요

"아...음..."

남학생B: "꼬마야 위험해 여기에 호랑이가 있어 어서 도망가!"



아라쉬: [게임기를 받으러 왔다고 해]



호인: "이상한 소리가 나서 와봤다...요..."

"어...게임기라는 물건을 받으러왔다"

@뜬금

남학생A: "게임기..? 아아 소문듣고왔구나.."



호인: 이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인지 아라쉬의 말에 따릅니다

남학생A: "그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에 없어"



호인: "어디로 갔는지 알고있느냐"

"요..."

남학생B: "그것보다 호랑이라고 호랑이..!"



호인: "?????"

남학생A: "아 가만히좀 있어봐 사라졌잖아 호랑이"
"알고있는데"



호인: "나도 그 뭐냐..."

"뭐였지...?"
@투명한 아라쉬에게 소곤



아라쉬: [게임기]



호인: "라는것을 받으려고 왔는데 혹시 어디갔는지 알고있으면 말해주겠느냐"
"요..."

남학생A: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남학생이 무언가 말하려고하자
학생들이 떨어트린 게임기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호인: "!"



Kaming (GM): 뭔가 움직이는듯한..



호인: 황급히 두 남학생을 붙들고 거리를 벌립니다
"아라쉬 경계하게!"



Kaming (GM): 호인이 움직인것과 동시에
게임기에서 괴형의 물체가 튀어나옵니다.



아라쉬: 튀어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활을 쏘서 물체를 맞춰봅니다



닌텐더: "카아악!"



쿠사카베 린: (이름 히익)



아라쉬: 진짜로 닌텐더다!



호인: 남학생 둘을 골목바깥쪽으로 둔뒤에



아라쉬: 린에게 연락.



호인: "도망쳐라!!"
@연락하는법 모름ㅍㅍ



닌텐더: 닌텐더들은



쿠사카베 린: 그럼 연락받고, 세실짱이라 같이 달려갑니다



닌텐더: 여러분들의
퇴로를 막는것처럼
막다른 골목길 입구에서
서있습니다.



아라쉬: 골목길 밖으로 나오는 소년들은 특대에 맡겨야겠네요
교복이었죠?



닌텐더: 네

소년들도 막다른 골목이라

 쿠사카베 린: 그럼 아라쉬호인 / 닌텐더 / 린세실리아가 디노려나...

 닌텐더: 나오지못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헉헉...!

 아라쉬: 목뒤를 쳐서
기절 시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멍청이들, 그래서 같이 간다고 했잖아...!"

 호인: 학생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투덜거리면서 달려오죠

 쿠사카베 린: "히-익! 저거 뭐야! 징그러!"

 호인: "그래도 어떻게 시간맞춰 와서 다행이구나"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 @계약소환

 Kaming (GM): 그리고 공터에서는 무언가가 스물스물 나타납니다.

 빅 아이즈 X3: "구게..엑..구객"

 비홀더: "눈..눈을 내놔라.."

 아라쉬: "눈과 관련된 마물들인가..."

-

 호인: "하찮은것!!"

 쿠사카베 린: 어라 토큰 수정한 것도 리셋됐네

 비홀더: 새 토큰이라

 Kaming (GM): 복붙할걸 생각못했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구)

 쿠사카베 린: 넵 수정완료

익

 Kaming (GM): 바카바카시

 쿠사카베 린: πππ

바카자나이!

우직한 거야!

첫 장애물전투...

 Kaming (GM): 무튼

검은 칠은 부시지못하는 장애물

녹색은 부실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닌텐더: "눈..알..눈알 모은다.."

 Kaming (GM): 전투시작

=====

 호인.: "니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 괴로워하는자들의 눈을 취하리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눈알 눈알 시끄럽네에."

 비홀더: "강해보이는 눈알이군..네녀석들의 눈알 전부 가져다가 주인님에게 바쳐주마"

 쿠사카베 린: "징그러운 눈알괴물들은 소독이야!"
이치노스케의 팔에서 화염방사기가 장전된닷!

 호인.: 키야..화방...

 Kaming (GM):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있는 모노노케들에게
각 개체당 한번씩 식별판정 가능
지성판정입니다.

 아라쉬: 닌텐더

 Kaming (GM): (본래라면)
(모두 저 안에 가둬놓고 시작하는건데)
(안따라왔어 후히히)

 호인.: 저는 빅-아이즈

 쿠사카베 린: 그럼 전 비홀더를

 Kaming (GM): 일단
닌텐더의 식별 난이도는
15

 아라쉬: rolling 2d6+2

$$(4 + 5) + 2 = 11$$

 호인.: πππ

 아라쉬: Fail

 쿠사카베 린: (익 난이도 15면 수정치 2로는 무리..)

 Kaming (GM): 빅아이즈는 12
비홀더는 15

 호인.: rolling 2d6+3 빅-아이즈

$$(6 + 3) + 3 = 12$$

 쿠사카베 린: rolling 2d6+7비홀더

$$(6 + 2) + 7$$

= 15



Kaming (GM): 호인 성공
린 성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닌텐더!

rolling 2d6+8

(5 + 6)+8

= 19



호인.: 세실리아 강해



쿠사카베 린: (우옷)
(팀의 두뇌담당!)



Kaming (GM): 성공



호인.: 왜 죄다 마공이야ㅠㅠ



쿠사카베 린: 익 마법데미지 반감에 맹독..
비홀더는 탤런트봉인까지
그나마 빅아이즈가 쉽겠고...
마법공격인게 좀 아프겠



호인.: 흠..
령문이 필요하겠군



쿠사카베 린: 저번엔 너무 영문을 아꼈어!



Kaming (GM): 좋습니다.
그러면
개시타이밍



쿠사카베 린: 음, 오는가
개시 없습니다



아라쉬: 이거
은신은 풀린 상태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투력 증강 대상은 린



호인.: 5소모 결정장착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55 소모



Kaming (GM): 아라쉬 화살싸서



쿠사카베 린: (아 저는 이번턴 공격하기 위치가 애매해서)



Kaming (GM): 게임기 떨어트릴때
애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쿠사카베 린: (간이이동해도 비홀더도 빅 아이도 안 닿아요)
다른분께 증강 걸어드리는게 좋을듯

 아라쉬: 그럼 개시엔
아무것도 안합니다.

 Kaming (GM): 개시 아무도 없나요?

 호인.: 저 결정장착
했습니당

 Kaming (GM): 네
일단 호인의 영력 5 6
아라쉬 2 3 4
린 3 5 5 5
세실리아 6 5 5 5

 쿠사카베 린: (토큰에 체크체크)

 Kaming (GM): 적어주세요

 호인.: 결정장착으로 5소모해서
6뿐입니다

 Kaming (GM): 네
그러면 개시 끝

 호인.: 적었어용

 Kaming (GM): 개시 더이상 없나요

 쿠사카베 린: 네

 아라쉬: 네

 Kaming (GM):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비홀더: "눈알 전부 뽑아주마.."
준비
나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전투력 증강 썼으니...
@대상은 인형하죠.

 비홀더: 개시인가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아까 첨 개시선언할때 했었음)

 비홀더: ㅇㅎ
네

 쿠사카베 린: 아까 개시때 쓰셨는데, 대상을 바꾸시겠단 것

 비홀더: 그러면
@공격

쿠사카베 린: 일 온다



비홀더: 마비의 마안
"우선 귀찮아 보이는 녀석부터 조용히 시켜야겠군"
@대상 아라쉬
@발동치 17



호인.: 방호가...없어..!?



쿠사카베 린: (차폐물 너머도 공격하다니, 전투지대 치사하다...)



아라쉬: 이건..
마공이죠?



비홀더: 네
《마비의 마안》:마법공격/전투지대/1체
대상에게 4d10 저항[소멸]의 마법데미지. 이 공격에 의해 1이라도 데미지를 받는다면 대상에게 [마비]의 상태이상을 부여한다.
대상이 반마력의 효과를 받고있다면 저항[반감]이 된다
비홀더의 수많은 눈에서



아라쉬: 후. 나의 저항은 1이다.



비홀더: 빔처럼
금색빛이 아라쉬에게 쏟아집니다.



쿠사카베 린: (비홀더의 발동은 17...)
(스페셜아니면 다 실패...)



아라쉬: 감저 타카시의 미안함을 연소하여
[물리초월]



비홀더: 네
좋습니다.
몇D추가하시죠?



아라쉬: 3d추가할게요



비홀더: 네
5d6mf
굴



아라쉬: rolling 5d6+1

$$(2 + 6 + 2 + 6 + 6) + 1 = 23$$



비홀더: 스페셜



아라쉬: 바꿀건 없네염
음 아니다



비홀더: 원하는 영력

6으로 바꿔주시고

 아라쉬: 원래 있던 2를 6으로 변경

 비홀더: 6이아니군
원하는 숫자로
변경가는이네요

 아라쉬: 이걸로 할게요

 비홀더: 임의에 주사위로 영력 바꿀 수 있습니다.
넵
그러면 저항 성공
저항[소멸]이므로 데미지는 없습니다.
@비비비비빔

 쿠사카베 린: (대마력...!)

 아라쉬: 타카시 나에게 힘을 줘

 호인.: 타케시///

 비홀더: 영문 3d6 소모해주시구

 아라쉬:

(+ +)

=

 비홀더: 13감소

 쿠사카베 린: (역시나 3기사 클래스....)

 아라쉬: 우와 영력 2 남았어

 쿠사카베 린: (익!)

 비홀더: (령문 최대치인 22로 회복하셨잖)

 호인.: 와우;;

 비홀더: (세션종료시 다 회복이예요)

 쿠사카베 린: (깜짝놀랐)

 아라쉬: 아 그러면 9 남

 비홀더: 하지만 살짝 크긴 크군요

 쿠사카베 린: (9남으셨네요)
(반토막이상..)

 비홀더: 아라쉬는 훌륭하게 저항합니다.

 아라쉬: [대마력 C]

비홀더: "...내 공격을 막아냈다고..?"

@살짝 당황한 모습



호인.: "이자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아라쉬: 영창이 2절 이하인 마술을 무효화한다.
대마술, 의례주법과 같은 대규모 마술은 막지 못한다.



비홀더: "숨기고 있던게 있나보구나.."



쿠사카베 린: (익ㅋㅋㅋ)



아라쉬: "생전이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말야."

-



Kaming (GM): 다음 닌텐더들의 튜



아라쉬: 이거 적들이 기습이라
먼저 하는건가요?



닌텐더: "눈알..뺏는다.."
행동치가 높습니다.



아라쉬: 저 행동치 14인데



닌텐더: 어라
저기에 왜 13으로 되었지



호인.: 저도 행동치 12입니다



아라쉬: 렘업하면서
바뀐게



닌텐더: 아하



호인.: 근데 그래도 낮아ㅋ



닌텐더: 좋습니다.
아라쉬부터



쿠사카베 린: 그러고보니 튜 오더에 저랑 세실리아가 안 보이네요



아라쉬: 대상이 [범위]가 된다는 것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튠오더 전부 추가해라 우우)



아라쉬: 한 칸에 있는 대상을 여럿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격 가능 범위 내에서 전부?



닌텐더: 대상의
근접상태인 상대까지



아라쉬: 글썽요.



닌텐더: 꼬덕



아라쉬: 닌텐도 하나만 공격해야겠다

 닌텐더: 닌텐더입니다!

 아라쉬: 죄송
스위치를

 닌텐더: @ㅎㅎ

 아라쉬: 준비 없이

 닌텐더: 네

 아라쉬: 공격에서 여웅혼의 일격(3), 양식(2)
아
2가 아니라 4
대상은 오른쪽에 있는
닌텐더

 Kaming (GM): 넵
회피치는 14

 아라쉬:

=

 Kaming (GM): 명중

 아라쉬: 20추가하고

=

24+31

55물리데미지

 호인.: 와장창

 아라쉬: 아
실수
12+31
이니까
43이네요

 Kaming (GM): 네
장갑은 4

 쿠사카베 린: (닌텐더피돼지였어...)

 아라쉬: "...생각보다 단단한걸.
-

 쿠사카베 린: (오른쪽에 23남있습니다. 메모메모)

 닌텐더: "카아아악! 누..눈알..!"
@생각보다 강력한 일격에
꿈지력 거립니다.
다음 닌텐더의 턴
"눈알..눈알..뿔아.."
오른쪽이

 닌텐더: 전투이동
@공격 마성의 일격

 호인.: 안돼 방호없다고ㅠㅠ

 닌텐더: 《마성의 일격》:물리공격/근접상태/1체
대상은 [속성: 마독/형상: 창], 4d+10의 물리 대미지. 이 물리공격으로 1점이라도 대미지를 받은 경우, 대상은 [상
태변화: 맹독]이 된다.
대상 아라쉬
닌텐더의 몸에서
낫보양의 기괴한 팔이 나와
아라쉬를 베어버립니다.

 닌텐더: 불길한 기운이 서려있는걸 보니
피해야할꺼같습니다.
명중치 16

 아라쉬:

명중자 우위?

 닌텐더: 능동 우선이라 실패

 아라쉬: 그럼
4를 6이랑 교환

 닌텐더: 넵
성공

 아라쉬: "어이쿠."

 닌텐더: 애꿎은 바닥만 치는군요

 아라쉬: 뒤로 점프해서 낫을 피합니다.

 닌텐더: 왼쪽이 이동
호인에게
마성의 일격
《마성의 일격》:물리공격/근접상태/1체

대상은 [속성: 마독/형상: 창], 4d+10의 물리 대미지. 이 물리공격으로 1점이라도 대미지를 받은 경우, 대상은 [상태변화: 맹독]이 된다.

오른쪽이와 똑같이

 닌텐더: 기과한 낮이 호인에게 내려쳐집니다.

 쿠사카베 린: (저렇게 되면 저쪽은 닌텐도랑 투닥투닥...)

 호인.: rolling 2d6+7

(5 + 5)+7

= 17

 닌텐더: 성공

 쿠사카베 린: (아이즈가 물려오는 미래가 엿보였다)

 호인.: 내려쳐지는 낮을 팔을 휘둘러 튕겨냅니다
바꿀게 없군

 닌텐더: "...! 눈..깡!"

 Kaming (GM): 다음 이치노스케 린

 쿠사카베 린: 네
"가라, 이치노스케~!
전투이동
한칸씩 가는거니까

 호인.: 고 이치노스케!

 Kaming (GM): 참고로
빅아이즈는 은밀상태

 쿠사카베 린: 에엿

 Kaming (GM): 장애물에 몸을 숨기고있습니다.

 쿠사카베 린: 뭐 범위 내의 비홀더부터
어찌어찌해보죠
탈런트봉인이라니 성가셔

 비홀더: "네녀석의 눈은 쓸모없겠구나.."
@이치노스케를 보며

 쿠사카베 린: @공격
앗 왜 이름이 자꾸
120mm포 씩니다

 호인.: 120mmㄷㄷ

 쿠사카베 린: 10마스
대상:범위
비홀더+고철데미

 비홀더: 회피해보죠

rolling 2d6+7

(3 + 2)+7

= 12

싯빠이

 쿠사카베 린: 데미지를

버프+아이템효과로

5d+21]

 비홀더: 고철더미의 체력은 25 장갑 7입니다.

 쿠사카베 린: 여기에 영력쓸수있었죠?

아 데미지구나

이런이런

 비홀더: 절레절레

 쿠사카베 린: 바보 아니에요!

rolling 5d6+21

(1 + 3 + 6 + 3 + 2)+21

= 36

큘 나쁜편...

 비홀더: 36데미

비홀더의 장갑은 2

34데미

 호인.: 투두두둥두둥

 비홀더: 고철더미는

 쿠사카베 린: 화염속성이니까

 비홀더: 부셔지는군요

 쿠사카베 린: 입이 열리면서

거대한 탄환이

투탕!

 비홀더: "쿠오오오! 내 사랑스러운 눈들이 불탄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잘했어, 다 태워버려!"

 비홀더: 다음 린

 쿠사카베 린: 음 전력이동

이쯤으로!

세실리아가 휘말리지 않도록 앞에 나서야할 느낌
턴 엔드입니다



비홀더: 8칸이동이군요



쿠사카베 린: 넵



비홀더: 네

다음 빅아이즈



빅 아이즈 X3: "키카..아악!"

@준비



아라쉬: 응? x3?



빅 아이즈 X3: 힘모으기

nx체에요



쿠사카베 린: (네 Xn 모노노케)



아라쉬: 아아



빅 아이즈 X3: xn

장애물에서 빼끔 내민 녀석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호인.: 어라 제턴이 아니였...

암튼...



빅 아이즈 X3: 어라



쿠사카베 린: (xn즉사기가 없으니....)



빅 아이즈 X3: 호인턴이네

이게



쿠사카베 린: (익 호인이)



빅 아이즈 X3: 행동력



쿠사카베 린: (바로바로 자동수정이 안된ㄴ군요)



빅 아이즈 X3: 바뀐걸 수정안해서

호인 행동해주세요.



쿠사카베 린: (수동이라니!)



호인.: 일단 어차피 빅-아이즈 충전할테니



빅 아이즈 X3: 수정완료



호인.: 할만한 행동도 음넵



빅 아이즈 X3: 뽀용뽀용뽀용 눈에 힘이 모아진다



쿠사카베 린: 때려부셔야죠

눈갈을 부쉬!

 호인.: 근접상태 선언한 상태인가요

 Kaming (GM): 네

 호인.: $\pi\pi$
주겨버리겠서

 Kaming (GM): 웬만하면 붙으면 자동으로 근접상태인걸로.
비행제외

 호인.: 바로앞 닌텐더를 육탄공격합니다

 Kaming (GM): 좋습니다.
회피치는 14

 호인.: 6소모 천지공

rolling 2d6+8 가랏

(1 + 6)+8

= 15

호응이...

 Kaming (GM): 성공
데미지 주시죠

 호인.: rolling 2d6*3+17

(4 + 1) * 3 + 17

= 32

12+17 = 29

장갑이 3이었으니

26데미네요

 Kaming (GM): 네
+천지공 효과로
밀어버리나요?

 호인.: 네

 아라쉬: 이거
낙백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가요?

 호인.: 네

 아라쉬: 지금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호인.: 네

오른쪽으로!



Kaming (GM): 좋습니다.



닌텐더: "쿠췌!?"

닌텐더끼리 부딪혀버립니다.



호인.: 닌텐더의 뚝배기를 후려쳐서 아라쉬쪽 닌텐더에게 날려버립니다



닌텐더: 우당탕

"눈..아프다..눈 뽑는다.."



호인.: "사지를 뽑아주겠다!"

으르렁



Kaming (GM): 다음 비익 아이즈



빅 아이즈 X3: @준비 힘모으기

오른쪽이입니다.

"키카아아악!"

린에게

마법공격

[마법공격]:마법공격/7메스/1체대상에게 3d+15의 마법 데미지



빅 아이즈 X3: 발동 16



쿠사카베 린: 저항하기전에 영문연소를



빅 아이즈 X3: 넵



쿠사카베 린: 타케시...안녕



호인.: πππ



쿠사카베 린: 2d연소하겠습니다

저항!



아라쉬: 다들 타케시와의 추억을

빠르게 버리는



쿠사카베 린: rolling 4d6+6

(1 + 1 + 6 + 2)+6

= 16

영력교환

1과 3을체인지

달성치는 18



빅 아이즈 X3: 네 저항

노데미지

령문 소모해주시구

쿠사카베 린: rolling 2d6



(1 + 5)

= 6

컷 반 남았다

소모완료했습니다



빅 아이즈 X3: 왼쪽이는 대기

오른쪽이 은밀 해제



Kaming (GM): 다음 세실리아짱

하악



아라쉬: 히엣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투이동

(다들 만피죠?)



Kaming (GM): (다들 회피하심)



호인.: 이야..



쿠사카베 린: 영문 안 쓰고 맞기에 4d데미지 넘나 무서운것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전력이동으로 위로 한마스 더.



쿠사카베 린: 음 다음에는 한대는 맞아도 괜찮으려나...



Kaming (GM): (어짜피 힐잇는것)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엔드



비홀더: @불이 꺼지며

"크으..암전히 눈알을 내놓을것이지..!"

1R종료

영력 회복



아라쉬: rolling 3d6

(4 + 6 + 2)

= 12



호인.: rolling 4d6

(6 + 1 + 2 + 6)

= 15



아라쉬: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누구 맘대로 내 눈을 가져가려는거야!"

rolling 2d6

(6 + 2)

= 8



아라쉬: 홀수가 안나오다니



쿠사카베 린: @영기울 종료타이밍에 영력 하나를 임의의 영력으로 변경



호인.: 5가 안나오네



쿠사카베 린: 아 임의래
+-1입니다



비홀더: 네



쿠사카베 린: 1을 2로



비홀더: 좋습니다.

그럼

2R

개시



쿠사카베 린: 개시없습니당



아라쉬: 은신을 못해

ㅌㅌ



비홀더: "네녀석들의 눈 전부 받아가마..!"



호인.: 저도 개시 없어요



쿠사카베 린: (익...)



호인.: "할수있으면 해봐라!"



비홀더: @개시

반마력



쿠사카베 린: 대상은 누구냐...!



비홀더: 《반마력》:개시/전투지대/1체

대상은 사용자의 [발동]의 대해 [저항]판정을 한다. 실패할경우 대상은 이번 턴 동안 특수 텔런트를 제외한 모든 텔런트를 사용 할 수 없다.

@대상 이치노스케



쿠사카베 린: 왓더

왓더어어어



비홀더: 이치노스케 저항은?



쿠사카베 린: 17입니다



비홀더: 네 저도 17입니다

능동측 우승



호인.: 허억



쿠사카베 린: 음엑음엑....

싫어엇



비홀더: "네녀석 잘도 나에게 불을 붙였겠다.."

@비홀더의 눈이 회색빛으로 물들며

@이치노스케를 바라봅니다.



쿠사카베 린: (뿔 무기공격이 있지만...)



비홀더: 이치노스케는 텔런트가 봉인되었다

무기공격도 모노노케는

텔런트라.

^^



쿠사카베 린: 음엑

나아쁜 GM...



호인.: 이치노스케는 잠들어버렸다!



비홀더: 개시 종료

비홀더의 턴

@준비 간이이동

살짝 멀어집니다.

"네녀석 아까부터 쫓알쫓알 시끄럽다!"

@마비의 마안



비홀더: 《마비의 마안》:마법공격/전투지대/1체

대상에게 4d10 저항[소멸]의 마법데미지. 이 공격에 의해 1이라도 데미지를 받는다면 대상에게 [마비]의 상태이상을 부여한다.

대상이 반마력의 효과를 받고있다면 저항[반감]이 된다.

세실리아에게



쿠사카베 린: (엄마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나 아무 말도 안했어?!"



비홀더: "네 눈이 맘에드는군"

@눈에서 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저리가! 싫어!"



비홀더: 발동치 17



호인.: 눈에서 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흐음...)



쿠사카베 린: (음... 5를 4로 만들어서 대신 맞게 할 수 있었는데, 미쳐파악을 못 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냐)

@영문연소, 린 다이스추가 2개



비홀더: 넵

저항 굴

 쿠사카베 린: (내 인연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4d6+6
(3 + 2 + 2 + 5)+6
= 18

 비홀더: 흠터레스팅
저항 성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2d6
rolling 2d6
(5 + 6)
= 11

 비홀더: 비비비비빔
11스..모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토끼귀가 부들부들 떨리더니, 눈에서 쏟아져나오는 광선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피해내요

 비홀더: 애꿎은 땅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마비 안걸려도 자동으로 떨려!

 호인.: 뽀뽀뽀뽀뽀

 비홀더: 빔이 꽃힙니다.
"아깝군..!"
@비홀더의 많은 눈이 세실리아를 노려봅니다.
다음아라쉬짱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악, 하아...아프다고오..." @손바닥이 굼혔다...피가 조금 배어나온다...

 Mekabob: 큼

 아라쉬: 흘수가 없다니..
준비 없고

 Mekabob: 공격에서 왼쪽 닌텐더를 대상으로

 아라쉬: 아
준비에서 섬고기를 선언
섬공기

 Kaming (GM): 섬고기!

 아라쉬: (4)

 Kaming (GM): ㅋㅋ
네

소모해주시구

 아라쉬: 그리고 2를 써서 양식

 Kaming (GM): 네

 아라쉬: 성공기로 공격을 범위로 변경해서
대상을 둘 다로 할게요

 Kaming (GM): 좋습니다
스고이하네요

 아라쉬:

(+)+8

=

 호인.: 일망타진이 이걸
어?

 아라쉬: ㄱㅈ

 Kaming (GM): 회피치 14
능동우선

 호인.: 아하

 아라쉬:

(+)+21

=

그대로

27

 Kaming (GM): 27데미군요

카

프로핏

 쿠사카베 린: 오른쪽이 닌텐더는..장갑빼면 23이니까

 Kaming (GM): 오른쪽이 정확히

 쿠사카베 린: 딱맞췄네요

 Kaming (GM): 사망

 호인.: 이야...

 아라쉬: 왼쪽은 몇 남죠

 Kaming (GM): 13

 아라쉬: 연소 안해도 되겠다



닌텐더: "큐카아악..눈이...아프다아.."

츄라라락

닌텐도 속으로

다시 빨려들어간다음

쩍..

하고 금이갑니다.



닌텐더: 특..



아라쉬: 화살의 비 속에서 닌텐더 하나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

왼쪽 녀석은 호인에게 맡기겠네요

-



닌텐더: "눈..눈!"

다음 닌텐더는

여러분 사이에 끼어듭니다.

@아라쉬에게 마성의 일격

《마성의 일격》:물리공격/근접상태/1체

대상은 [속성: 마독/형상: 창], 4d+10의 물리 대미지. 이 물리공격으로 1점이라도 대미지를 받은 경우, 대상은 [상태변화: 맹독]이 된다.



아라쉬: rolling 2d6+7

(2 + 1)+7

= 10

...



닌텐더: 싯빠이

명중 16



아라쉬: 1을 6으로 바꿔도 실패



호인.: 무리데쓰요ㅠㅠ



닌텐더: 데미지 주겠습니다.

rolling 4d6+10

(3 + 6 + 1 + 6)+10

= 26

26데미

+맹독



호인.: 헐?



쿠사카베 린: (엄마야)



아라쉬: 장갑 4

22데미

-  호인.: "아라쉬!"
-  닌텐더: 강도는 7
-  쿠사카베 린: (익...)
-  아라쉬: 아라쉬는 강건 EX의 소유자라 독에 걸리지 않는데!(무의미)
-  호인.: 오오...
는
여긴 카미가카리였다고 한다
-  닌텐더: 아라쉬의
왼팔이
닌텐더의 날카로운 낫에 베입니다.
-  아라쉬: 수라주가 없네
ㅋㅋㅋ
-  닌텐더: 그리고 그곳에서 화끈한 느낌이 느껴지죠
[맹독]
"눈..을..뿔아야.."
-  호인.: 흠...템 남한테 사용해줄수 있나요?
-  아라쉬: "이건...독...?"
-  쿠사카베 린: 호인이 아라쉬의 이름을 다급히 외치는 걸 듣고
-  Kaming (GM): 다음
-  쿠사카베 린: 매우 놀랍니다
-  Kaming (GM): 린 치노스케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다쳤구나...치료는 말기라구."
-  아라쉬: "아니, 나한테 통한다는 것은... 영체를 분해하는 건가..."
-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가려서 잘은 안보이지만.
-  쿠사카베 린: 음 린부터 할게요
준비 - 비전의 신언
5를 써서
-  호인.: "무언가에 간섭이 있는듯 하다"
@아라쉬의 말에 대꾸합니다
-  쿠사카베 린: 공격의 랭크를 +1
아 대미지
간이이동으로 한칸 움직이고
미혹의 사시
5 5 씩니다
대상은 비홀더



쿠사카베 린: 발동률

rolling 2d6+7

(3 + 4)+7

= 14



Kaming (GM): 비홀더의 저항은 13



비홀더: 명중



쿠사카베 린: 그림 데미지판정을

2d6*4+11

rolling 2d6*4+11

(3 + 6)*4+11

= 47

35



비홀더: 비홀더의 결과는 4

남은 체력 24



쿠사카베 린: "하찮은 눈에서 빔이로구나"



호인.: 주겠다고한다



비홀더: 사망



쿠사카베 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눈에서 빔"



비홀더: ".....!"



쿠사카베 린: "진정한 카미가카리는 눈으로 죽인다!"

@눈에서 빔



비홀더: "그런 우스꽝스러운...공격으로..이 내가아..!"



호인.: 오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거 만화에서...본..."



비홀더: "ㄷ...죄송합니다.주인..ㄴ"

@푸카악!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중얼거리다 앓차 싶어서 재빨리 입을 다물쥌!



쿠사카베 린: "후우... 하찮은 녀석을 노려봐버렸군" @우쥌



Kaming (GM): 쥌금



쿠사카베 린: 턴 종료



Kaming (GM): 다음 린치노스케



쿠사카베 린: 이치노스케는 전력이동 앞으로



Kaming (GM): 까아
근접해버렸



쿠사카베 린: 근접선언
눈깔사탕
턴 엔드



Kaming (GM): 다음 호오잇



호인.: 닌텐더를



Kaming (GM): 참고로



호인.: 뿌셔버려야겠습니다



Kaming (GM):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호인사이즈2 아라쉬 사이즈2

닌텐더 사이즈 2

호인과 아라쉬 합계는 4이므로 닌텐더보다 2 높죠?

차이나는 분만큼 사이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호인.: 애 뿌셔버리기전에
수라주를 아라쉬한테 써줄수 있나요



Kaming (GM): 다른사람에게 사용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있



호인.: 그렇군요
그럼 그냥 눈앞에 이놈을 뿌셔버리겠습니다
6 1 소모
천지공 + 영위격



Kaming (GM): 넵



호인.: rolling 2d6+8

(2 + 6)+8

= 16

주거라



Kaming (GM): 끼야악
데미지



호인.: rolling 2d6*4+17

(4 + 6)*4+17

= 57



Kaming (GM): 네 사망



호인.: 24+17
@닌텐더의 머리를 잡고

 닌텐더: "눈알..!"

 호인.: 사과뿌수듯이 짜직
합니다

 닌텐더: @짜직
@툭
하고 닌텐도 본체만 떨어진뒤;
금이갑니다.

 Kaming (GM): 빅아이즈턴

 빅 아이즈 X3: "쿠카..캉"

 쿠사카베 린: 근접상태는 차폐를 무효로 하는구나 음음

 빅 아이즈 X3: @힘모으기
마법공격 대상 린

 쿠사카베 린: 으각
발동 16인가...
회피 해보죠

 빅 아이즈 X3: [마법공격]:마법공격/7메스/1체대상에게 3d+15의 마법 데미지

 쿠사카베 린: rolling 2d6+6

(4 + 5)+6

= 15

쿿

 빅 아이즈 X3: 싯빠이

 쿠사카베 린: 결과는 1...
와라!

 빅 아이즈 X3: rolling 4d6+15

(1 + 5 + 1 + 4)+15

= 26

16템

26템

 쿠사카베 린: 16템! 16템!
25맞고
HP깎습니다

 빅 아이즈 X3: 다음
@꾸물꾸물

 쿠사카베 린: "까-아!"

"여기까지 나를 밀어붙이다니...!"

@부들



빅 아이즈 X3: 사정거리에 닿은 이치노스케에게

@준비 힘모으기

@눈에서 빔

《원거리 특화》:상시/사용자/사용자

자신이 근접상태가 아닐경우 모든판정의 +2의 수정을 받는다.

발동 18



쿠사카베 린: 음

맞습니다



빅 아이즈 X3: rolling 4d6+15

(2 + 2 + 1 + 6)+15

= 26

26템

똑같잖아!

빠이이임!

하며 이치노스케와

린을 가격



쿠사카베 린: 마뎀이니까

엑

24맞습니다 결계2



빅 아이즈 X3: 다음 세실리아짱

하악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 린 피 몇/몇?)



쿠사카베 린: 린 15



아라쉬: 27

7감소 예정

-



쿠사카베 린: 저는 다음 턴에 뒤로 빠지면 안 맞을테니까...

이쪽이 사정거리는 더 길어요!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준비는 없고 아라쉬에게 고위치유



아라쉬: 보이지 않는곳에서 치유가 날아온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8

(6 + 6)+8

= 20

 아라쉬: ㄷㄷ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2를 6으로...

 빅 아이즈 X3: ㅅ..슛고이
데미지는 크리티컬로

 쿠사카베 린: 슛고이..

 빅 아이즈 X3: 10x랭크

 호인.: 이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3+14

(4 + 2) * 3 + 14

= 32

 쿠사카베 린: 44회복이되는군요

 빅 아이즈 X3: 30+14
44회복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벗꽃의 은혜는 언제 어디에나!"
"얍얍!"

 빅 아이즈 X3: (귀여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번에도 조그마한 분홍색 십자가를 꺼내서 흔들흔들
@엔드쵸

 아라쉬: 그럼 붕괴가 진행되는 것보다도 빠르게 몸이 재구축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빅 아이즈 X3: 종료페이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아라쉬 임의의 영력 +-1

 Kaming (GM): 아라쉬 강도만큼 HP데미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쿠사카베 린: 영기울로 영력에 +-1

 Kaming (GM): 아라쉬의 팔에서 화끈한 통증은
계속됩니다.

 아라쉬: 4를 3으로

 Kaming (GM): 넵

 아라쉬: 아니..

음

4를 5로

어, 어떻게 하지

쿠사카베 린: 2->3으로 변경



아라쉬: 3으로 하지 5로 하지...
역시 3으로!



Kaming (GM): 아라쉬짱
7템
영력 회복해주시구



호인.: 허어..

rolling 2d6

(3 + 2)

= 5



쿠사카베 린: 앓 아라쉬가 턴 오더에서 사라졌어



아라쉬: rolling 2d6

(3 + 4)

= 7



쿠사카베 린: rolling 3d6

(1 + 1 + 2)

= 4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1d6

(5)

= 5



Kaming (GM): 잉 나는 보이는데



쿠사카베 린: 익...
112...



호인.: 2를 어따써;;



아라쉬: 사실 저도 안보임
ㅋ



Kaming (GM): 보이냐영?



아라쉬: 네



Kaming (GM): 이상한 롤20

아라쉬: 구다아라쉬



쿠사카베 린: 구다아라쉬이



Kaming (GM): 그림 3R

개시



아라쉬: 없!



쿠사카베 린: 없!



아라쉬: 오른쪽 애 이미 한번 공격 받았던가요?

한번 더 치면 죽으려나



Kaming (GM): 다 풀피



쿠사카베 린: 둘다 노데미지입니다 아마



아라쉬: 오케이



Kaming (GM): 자그러면

아라쉬턴



아라쉬: 준비 전에 특수를 소비해서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화장실을...물을 많이마셔서...부들)



아라쉬: 활강망토의 효과로

2턴 이동

아니 2칸 이동



Kaming (GM): (냉)

네



아라쉬: 아래로 두칸.



Kaming (GM): 2턴이동..!

미래로..!



아라쉬: 준비에서

그림자 부수기

34를 소모해서



Kaming (GM): 좋습니다.



아라쉬: 8칸 이동



호인.: 이야



아라쉬: 저스트 8칸

빅아이에게 전도



Kaming (GM): 참고로 저 아이콘

전도입니다!



쿠사카베 린: 아이콘 좋네요

전도보다는 허리빼굿같지만



Kaming (GM): 허리가 아파웃

아이콘

 아라쉬: 오른쪽의 빅아이에게 공격

 Kaming (GM): 네 좋습니다.

8칸 이동했지만

실상 이동행위가 없어서

사격이 가능해!

 아라쉬: 공격에 영웅혼의 일격을

짜수...

6을 사요ㅇ

 Kaming (GM): 회피치는 12입니다.

 아라쉬:

= 9

?

 Kaming (GM): 전도로

-2

 쿠사카베 린: (*엇...)

 Kaming (GM): 10

 아라쉬: 1하나를 2로 변경

 Kaming (GM): 는

 아라쉬: 아니3

으로..

 Kaming (GM): 펌블이라

조작 안됩니다.

 아라쉬: 큼.....

 Kaming (GM): 싯빠이

 쿠사카베 린: 펌블이라 자동실패

 Kaming (GM): 3->1로 바꿔주시구

자동 실패

 호인.: 와...

펌블이..

 Kaming (GM): 아라쉬는

 아라쉬: 잡을 수 있었는데...!!

 Kaming (GM): 빅아이에게

다가와
 빅아이즈를 넘어트리는데 성공하지만
 빅아이즈가
 넘어지면서
 축수로 아라쉬를 휘감습니다.



Kaming (GM): @축슈축슈



아라쉬: "크. 이녀석...!"



쿠사카베 린: 히익



Kaming (GM): 기분나쁜 감축에
 아라쉬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빅 아이즈 X3: "크..쿠카악!"
 린치노스케 턴



아라쉬: "팔을 다치지만 앓았어도...!"



쿠사카베 린: 린
 한 칸 뒤로 간이이동
 3(홀수) 소모해서 비전의 신언. 대미지 랭크+1
 아 순서가 반대군.
 비전의 신언 -> 간이이동
 그리고 공격으로 미혹의 사시



쿠사카베 린: 1 1 소모해서
 왼쪽이에게



Kaming (GM): 네
 저항 11



쿠사카베 린: rolling 2d6+7

(6 + 6)+7

= 19



Kaming (GM): ?
 스페셜
 영력 임의눈으로



쿠사카베 린: 크리티컬!



Kaming (GM): 바꿔주시구
 10x랭크
 데미지



쿠사카베 린: 4랭크가 되니까



Kaming (GM): 한방뜨겠는데?

 쿠사카베 린: 40+11

 Kaming (GM): 억..

 아라쉬: 내 펌블을 크리로 바꾸어... 앞으로 나아가라...
토마룬자네에조..

 Kaming (GM): 결계는 2

 쿠사카베 린: 주문을 외운 린이
번쩍! 안광을 빛내

 Kaming (GM): 한방입니다.

 쿠사카베 린: "눈에서 비이이이임!"

 빅 아이즈 X3: "히데북!!!!"
@푸카악

 호인.: 부와악

 Kaming (GM): 빛이되어 사라집니다.

 쿠사카베 린: "안구건조증 걱정 없는 마안!"
이치노스케
준비없고
눈갈이에게
120mm포
아마도 자동명중

 호인.: 투두두두둑두둑

 Kaming (GM): rolling 2d6+5

(4 + 4)+5

= 13

싯빠이

 빅 아이즈 X3: 데미지!

 호인.: 으아 빠카나

 쿠사카베 린: 데미지 굴립니다

 호인.: 울ㅋ

 쿠사카베 린: rolling 4d6+21

(3 + 6 + 2 + 2)+21

= 34

 빅 아이즈 X3: 장갑 3
31데미지



쿠사카베 린: 눈깔에 대고 투광!



빅 아이즈 X3: 푸파파파팍
하고 눈괴물 2마리가 눈알이 터져서 쓰러집니다.
추욱



Kaming (GM): 호인턴



호인.: 할게 없어 전투이동해도...



아라쉬: 내가 펌블만 내지 않았어도..
스마나이..



쿠사카베 린: 뭐 리소스를 더이상 소모할 일은 없을테니



호인.: 대략 이정도까지가 한계



쿠사카베 린: 세실리아가 힐하거나 무기공격하고... 다음턴에 아라쉬가 막타날리실듯



Kaming (GM): 엔드?



호인.: 엔드합니다
여기까지 이동하고



Kaming (GM): 빅아이즈노 턴!



호인.: πππ



Kaming (GM): @준비
힘모으기!
끓어오른다 눈깔!
@공격 아라쉬 눈에서 빔
발동 16



호인.: 난 5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아라쉬: 이건... 물리?



호인.: 그 대가를 치르리라



빅 아이즈 X3: "쿠..카카아아!"
@비비비비빔
제로거리 빔이다!



아라쉬: 마법이구나

rolling 2d6+1

(4 + 2)+1

= 7



빅 아이즈 X3: 싯빠이
데미지



아라쉬: 4를 1로 변경



빅 아이즈 X3: roll 4d6+15

rolling 4d6+15

(6 + 5 + 4 + 4)+15

= 34

34데미지



아라쉬: 결계2

32



빅 아이즈 X3: 제로거리에서의



아라쉬: 데미지



빅 아이즈 X3: 눈깔빔은



쿠사카베 린: 우와아



빅 아이즈 X3: 강력했다!



아라쉬: 우옷

위험해~



빅 아이즈 X3: 아라쉬의

대마력을 뚫고

아라쉬의 몸통을 관통합니다.



아라쉬: "크으악!"



Kaming (GM): 세실짱노 턴!



호인.: 탱커가 탱을 못하면 어찌란..



아라쉬: 텍데굴 구릅니다



빅 아이즈 X3: 빅아이즈는

웃고있는듯합니다

@어떠냐라는 눈빛



쿠사카베 린: 눈알 하나뿐인 주제에 도야가오해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저런저런, 금방 치료해줄게~"

@윙크 한번 하고는, 준비 없고 고위치유 아라쉬

rolling 2d6+8

(3 + 5)+8

= 16



빅 아이즈 X3: 스고이 힐러

네 성공

데미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3+14

$$(5 + 3) * 3 + 14$$

$$= 38$$

29 회복



아라쉬: 몸이 회복과 붕괴를
반복하고 있어
이것이 영웅혼..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이번에도 허공에 십자가를 휘익 휘두르면...상처가 치료되는군요



아라쉬: 몸에 났던 구멍이 매꾸어집니다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벗꽃잎 같은 분홍빛 십자가 허공에 흩날려요.



아라쉬: "미안!"

-



Kaming (GM): 종료 페이즈
영력 회복

+



아라쉬: 파직



Kaming (GM): 아라쉬 7데미



아라쉬: rolling 3d6

$$(5 + 5 + 2)$$

$$= 12$$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

$$(5 + 2)$$

$$= 7$$



Kaming (GM): 아라쉬의 팔이 점점더 화끈해집니다.
붕괴의 조짐



아라쉬: 팔이 화끈해지는걸 보니



Kaming (GM): 붕괴..?



아라쉬: 차드의 영웅혼인게



Kaming (GM): 붕괴3!



아라쉬: 틀림없어



Kaming (GM): <,떡

 아라쉬: < 펍

 호인.: 붕괴

 쿠사카베 린: 아라쉬의 영압이... 사라졌어!?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붕창..)

 호인.: 손나아아아

 쿠사카베 린: 아라쉬는 절대 그리 간단히 질 녀석이 아니야...

 Kaming (GM): 자 그러면

마지막라운드겠군요

개시

 아라쉬: 아라쉬가 진다는건 상상할 수 없어

개시에서 기세 소실

아라쉬의 기세가...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개시는 아킨다

 아라쉬: 사라졌다...?

 쿠사카베 린: (아 영력회복해야지)

 아라쉬: 5를 써서

은신

 쿠사카베 린: 뭐 이번판하면 끝나지만

 Kaming (GM): 네

 호인.: 회복할 영력이 없어...

 Kaming (GM): 그러면 빠르게

아라쉬 턴

 아라쉬: 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 + 양식 대상은 바로 오른쪽의 측수

rolling 2d6+8

(4 + 2)+8

= 14

 쿠사카베 린: (명중)

 Kaming (GM): 명중

 쿠사카베 린: (주거랏!)

 Kaming (GM): 무슨데미지는 죽겠군요

든

 호인.: 죽어라

 아라쉬: rolling 2d6*2+36

(4 + 2) * 2 + 36

= 48

8+36

44데미지

 **Kaming (GM):** 네 사망

 쿠사카베 린: (2연속 펌블은 다행히 없었다)

 빅 아이즈 X3: "쿠카아아악!"
@철푸덕

 아라쉬: "휴우. 어떻게든 됐네."

 **Kaming (GM):** 전투종료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하아, 고생 많았어, 다들."

 아라쉬: 팔의 상태를 확인해봅니다

 쿠사카베 린: "내 진정한 힘(마안)이 더욱 더 강해진 느낌이야" @도야아...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품에 벚꽃색 십자가를 집어넣으며 말하네요.

 쿠사카베 린: "아라쉬 팔은 괜찮아요?"

 호인.: "괜찮은가!?"

 호인: @뽕

 **Kaming (GM):** 화끈화끈

 호인: @황급히 아라쉬에게 다가옵니다

 **Kaming (GM):** 주변의 펼쳐진 영력결계가 걷히고..
멀뚱멀뚱 서있는체 굳어있는
두 소년

남학생A: "....."
"이거 무슨 행사?"

남학생B: "아하하 그럴겠..지?"

 아라쉬: "특대를 불러야겠네."

남학생B: @현실부정

 호인: "이런..."

 쿠사카베 린: (사룬안 쓰기 아까우니까말이죠)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응."
@아마도....흐아.

 쿠사카베 린: (음 근데 써두는 게 좋으려나. 애네 도망칠지도...)

 아라쉬: "아아. 그전에."

 Kaming (GM): 유능하니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조금은 지쳤지만...

 아라쉬: 남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게임기를 나눠준다는 사람의 행방을 묻습니다.

남학생A: "아..에에 무엇이든..말씀드릴게요"

 쿠사카베 린: (검은 차를 타고 온 선글라스 아저씨가 남학생들을 데려간다고...!)

남학생A: "분명... 하얀머리에..ㅇ..안대를 차고있고"

@정보5공개

"동물귀의 소녀를 찾고있었어요"

"또 우리 오기전에 같은학교의 여학생이 다녀갔던거 같은.."

 아라쉬: "흠."

사람 좋은 미소로 이야기를 들어둔 뒤에는,
수도로 살짝 목 뒤를 쳐서 기절 시키고
특대요원이 오면 넘겨주는 것으로

-

남학생A: @켓

@Zzzzz

남학생B: @Zzzz

 쿠사카베 린: 왜 고딩들이
코스프레클럽위치를 알고 있는거야

 Kaming (GM): @췌

 아라쉬: 관심이 있었나봄

 Kaming (GM): 한참 그럴나이잖아

 아라쉬: "나나모리... 라고 하면 분명 ㅇ-"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우리 학교야."

 아라쉬: "그랬지."

 호인: @돌아봅니다

흐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

 아라쉬: "서두를까."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표정이 굳어있어요.

 Kaming (GM): 네 세실리아의 교복과 같은 학교 교복이군요

 쿠사카베 린: "셋쌍네 학교... 누가 가져갔는지 당장 찾아내자!"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바보 멍청이가...말려들지 말란 말야..."

@혼잣말을 흘리면서...빠르게 골목을 벗어나죠.

 **Kaming (GM):** 골목길에서의 혈투는 이걸로 마무리

 **아라쉬:** 빨리 가는건 가는거지만
소재는 챙겨야

 **호인:** 갈무리 타임

 **쿠사카베 린:** 갈무리 타-임

 **Kaming (GM):** 괴물들이 나타나는 게임기를 나눠주는 정체불명의 남자는..대체..누구?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건 메타처리로 소곤소곤)

 **쿠사카베 린:** 다들 남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네요
소재! 소재!

 **호인:** 갈무리...갈무리를 하자!!

 **Kaming (GM):** =====

 **아라쉬:** 아냐!

 **Kaming (GM):** 일단 씌은 여기서 닫고

 **아라쉬:** 남자도 중요해!

 **Kaming (GM):** 갈무리를
합시다.
일단 닌텐더! 2체

 **아라쉬:** 닌텐더 하나 할게요

 **Kaming (GM):** 귀염둥이 축슈 2체
눈갈많음이 1체
골라잡아보시죠

 **아라쉬:** 닌텐도 1체

rolling 2d6

(1 + 5)

= 6

응!

-

 **호인:** 비홀더

 **Kaming (GM):** 응 싯파이

 **호인:** rolling 2d6

(2 + 6)

= 8

적당하군

더러운 축수

**Kaming (GM):** 아니네 6까징 | 쓰었군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그럼...큰눈하나를

**Kaming (GM):** 닌텐더

6은

닌텐도 펜!



아라쉬: 와-

**Kaming (GM):** 닌텐도 펜/민첩+1:500G(효과치:1)

아라쉬: 오



쿠사카베 린: 아라쉬 닌텐도펜...



아라쉬: 민첩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rolling 2d6

(2 + 6)

= 8



쿠사카베 린: 닌텐도, 빅아이 하나씩 남았군요

**Kaming (GM):** 날카로운 이빨/물리데미지+2:500G(효과치:1)

비홀더 8



쿠사카베 린: 빅 아이할게요

내 눈빛에 한방에 죽은 너로 정했다

rolling 2d6

(1 + 5)

= 6

쳇

**Kaming (GM):** 더러운 축수/생명+3:500G(효과치:1)

키타나이 축슈

구워먹으면

맛있을지도?

세실리아짱도



호인: 디-럽

**Kaming (GM):** 축슈를 좋아하나보군요

더러운 축수/생명+3:500G(효과치:1)

남은건
닌텐더 하나

 호인: 닌텐더 갈무리 해보죠
제가

 쿠사카베 린: 닌텐도를 갈무리해도 나오는건
부품이지만
익..

 호인: rolling 2d6

(3 + 1)

= 4

어...

 Kaming (GM): 네
싯빠이

 호인: ππ

 쿠사카베 린: 뭐 갈무리는 10이상 아니면

 Kaming (GM): 너무 부서놔서
닌텐도가
망가져잇네요

 쿠사카베 린: 다 똑같이 500골드 효과1 이라

 호인: 운명하셨습니다

 쿠사카베 린: 문명하셨어...

 Kaming (GM): 그러면 갈무리는 끝났고
잠깐 마스터씬 하고 마칠게요
=====

 쿠사카베 린: 네

 카미야 쿄코: "후흥 후흥~♪"

 쿠사카베 린: (발랄)

 카미야 쿄코: 기분 좋게 밤길을 걸어다니고 있는 쿄코짱
"도시전설이 아니었어 정말일줄이야"
@쿄코의 품안에는
@닌X도가
"그런데 처음보는 기종인데 뭘까아?"
@이리저리 둘러봄

 카미야 쿄코: "그런데 나 이거 게임 소프트가 없는데.."
@....

"세실리아는 가지고있으려나?"
 "지금쯤이면 집에 있겠지?"
 "같이 게임하고...또 귀도...우헤헤"
 "기대되는걸~♪"



카미야 쿄코: @후후~
 세실리아의 집방향으로 룰루랄라 발걸음을 옮기는 쿄코.



Kaming (GM): 하지만...
 쿄코의 품안에 있는 그것은..
 =====
 이상입니다.



아라쉬: 바이바이



호인: 고생하셨습니다



아라쉬: 쿄코



Kaming (GM): 고생하셨습니다.



아라쉬: 고생하셨습니다



쿠사카베 린: 수고하셔어요
 영력회복!

rolling 3d6

(5 + 3 + 6)

= 14



아라쉬: rolling 3d6

(4 + 2 + 1)

= 7



Kaming (GM): 스고이



호인: 슷고이



아라쉬: 흘수가 하나더 나와주지
 크흑



쿠사카베 린: 어찌다보니 전투에서활약한 린..



아라쉬: 펴블만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 으으...



쿠사카베 린: 본래 공격은 서브딜 정도였건만



아라쉬: 안했어도
 한턴 일찍 끝났을텐데